정책연구 2014-39

오송전시관 설립 기본구상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연 구 진

오은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진경(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제현정(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한인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차 례

제1장 과업의 개요 ····· 1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과업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 범위 ····· 4
2. 연구 방법 ····· 5

제2장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 7

제1절 국내 유사 사례 분석 ····· 9

1. 대구 엑스코 ····· 9
2. 일산 킨텍스 ····· 14
3. 창원 세코 ····· 19
4. 서울 코엑스 ····· 24

제2절 국외 유사 사례 분석 ····· 29

1. 프랑스 라빌레뜨 과학산업관 ····· 29
2.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 34
3. 일본과학미래관 ····· 38

제3장 오송전시관 건립 여건 분석 ····· 43

제1절 충북 지역 여건 분석 ····· 45

1. 일반 현황 ····· 45
2. 경제활동 현황 ····· 47
3. 정책환경 현황 ····· 49

제2절 오송 주변지역 여건 분석 ····· 57

1. 일반 현황 ····· 57

2. 경제활동 현황 ····· 60
3. 오송지역 내 박람회개최 현황 ····· 69

제4장 오송전시관 건립의 기본구상 ····· 77

제1절 필요성 및 잠재력 진단 ····· 79
1. 필요성 ····· 79
2. 잠재력 ····· 81
제2절 기본개념 ····· 83
1. 건립 목적 ····· 83
2. 건립 기본 원칙 ····· 84
제3절 운영프로그램 ····· 86
제4절 건립계획 ····· 88
1. 기본방향 ····· 88
2. 사업내용 ····· 89
3. 재원조달 ····· 94
4. 운영방안 ····· 97

제5장 오송전시관 건립의 사전타당성 검토 ····· 101

제1절 개요 ····· 103
1. 일반적인 타당성 평가의 개념과 절차 ····· 103
2. 오송전시관 건립의 타당성 검토 개요 ····· 105
제2절 사전타당성 검토 ····· 108
1. 정책적 타당성 검토 ····· 108
2. 입지여건 타당성 검토 ····· 116

3. 사업규모 타당성 검토 ····· 121
제3절 검토종합 ····· 126

참고문헌 ····· 129

표 차 례

<표 1> 대구 엑스코 시설 ····· 13
<표 2> 일산 킨텍스 시설 ····· 18
<표 3> 창원 세코 연계관광 프로그램 ····· 21
<표 4> 창원 세코 학습동아리 ····· 22
<표 5> 창원 세코 시설 ····· 23
<표 6> 창원 세코 운영(2012년 기준) ····· 24
<표 7> 코엑스 시설 ····· 27
<표 8> 국내 유사 시설 비교 ····· 28
<표 9> 라빌레뜨 과학산업관 학생교육프로그램 ····· 31
<표 10> 라빌레뜨 과학산업관 교사교육프로그램 ····· 32
<표 11> 라빌레뜨 과학산업관 시설 ····· 33
<표 12> 시카고 과학박물관시설 ····· 37
<표 13> 일본 과학미래관 시설 ····· 41
<표 14> 국외 유사시설 비교 ····· 42
<표 15> 충북지역 산업단지 현황(2014년 2분기 기준) ····· 49
<표 16> 경제협력권사업의 프로젝트 선정결과 ····· 51
<표 17> 전국 주요 컨벤션센터 현황 ····· 54
<표 18>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의 발전방향 주요내용 ····· 55
<표 19> 청주시 주요산업단지 현황 ····· 62
<표 20>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주요기관 현황 ····· 66
<표 21> 2013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관람객 집계결과 ····· 71
<표 22> 2014바이오엑스포 학술회의 및 비즈니스네트워킹 참여 결과 ····· 74
<표 23> 국내 유사 시설 비교 ····· 91

<표 24> 국제회의시설 규격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92

<표 25> 오송전시관의 층별 배치 ····· 93

<표 26> 현재 충청북도 내 대규모 전시회 현황 ····· 99

<표 27>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 120

그림 차례

<그림 1> 과제 수행도 ····· 6
<그림 2> 대구 엑스코 ····· 10
<그림 3> 대구 엑스코 조직 구성 ····· 11
<그림 4> 일산킨텍스 ····· 15
<그림 5> 일산킨텍스 조직 구성 ····· 16
<그림 6> 창원 세코 ····· 19
<그림 7> 창원 세코 조직 구성 ····· 20
<그림 8> 창원 세코 주변시설 ····· 23
<그림 9> 서울 코엑스 ····· 25
<그림 10> 코엑스 조직구성 ····· 26
<그림 11> 라빌레뜨 과학산업관 ····· 30
<그림 12> 라빌레뜨 내부 ····· 30
<그림 13>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 35
<그림 14>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조직구성 ····· 35
<그림 15> 일본 과학미래관 ····· 38
<그림 16> 일본 과학미래관 조직구성 ····· 39
<그림 17> 충북지역 산업단지의 연도별 생산 및 수출실적 추이 ····· 49
<그림 18> 지역산업지원사업의 개편 추이 ····· 50
<그림 19> 시·도별 주력산업의 선정 결과 ····· 52
<그림 20> 충청북도 발전계획도(2008~2020) ····· 56
<그림 21> 오송지역의 지리적 접근성 ····· 58
<그림 22> 청주국제공항 ····· 60
<그림 23> 오송지역 주요 산업단지 위치 현황 ····· 63

<그림 24>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뷰티테라피 기능경진대회 ····· 71
<그림 25>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화장품산업관 ···· 72
<그림 26> 오송바이오엑스포 행사장 전경 ····· 74
<그림 27> 한국바이오칩학회 추계학술대회 ····· 75
<그림 28>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행사장 전경 ····· 76
<그림 29>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 수행체계 ····· 105
<그림 30> 오송전시관 건립의 사전타당성 검토 수행체계 ··· 107
<그림 31> 오송의 입지여건 ····· 118
<그림 32> 오송 전시관이 충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 ····· 125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과업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최근에 충청북도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기반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또 다른 성장의 구심점으로 등장하기 시작
- 오송생명과학단지는 2009년 8월 대구 신서 혁신도시와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30년간 총 5조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정부 예산이 투입될 예정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따라 신약 개발지원센터 및 의료기기 개발센터, 임상시험센터 등 의료사업에 필수적인 기간시설들이 구비될 예정
- 또한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6대 국책기관이 소재하여 있음

❍ 또한 세종시에 중앙부처와 관련 연구원 등이 속속들이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세종시와 가까운 오송 지역에 새로운 활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충북하면 수려한 산악경관과 호수 등을 배경으로 힐링의 장소로 인정받고 있었으나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세종시 중앙행정타운 등으로 인하여 힐링을 넘어서 경제개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충북은 지금까지 기업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아직까지 기업 지원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유치하기 위한 물리적 인프라 조성이 다른 시·도에 비하여 미흡한 편임

❍ 따라서 기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

고 “B2B”를 통한 기업간 상거래 장소를 제공하는 등 기업 부문에서의 상호교류를 유도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함

□ 연구 목적

❍ 본 과제는 충북의 오송 지역에 기업들 간 상호거래를 활성화시키고 행정·의료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시관”의 기본구상을 수립

– 충청북도 내 새로운 성장거점인 오송은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한 고속 교통망의 중심지로 국내외 각종 회의·행사가 개최될 수 있는 적지임

❍ 오송전시관의 기본구상이 다른 지역이나 유사 사례와 견주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립 방향 설정

❍ 오송전시관 건립의 타당성을 검토

– 오송 전시관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고 전시관이 가져올 다각적인 편익을 추정

제2절 과업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오송전시관 건립 여건 분석

❍ 오송전시관 건립의 기본구상을 위하여 주변의 여건을 분석

– 오송 주변지역의 교통 및 경제환경 분석

❍ 향후 오송 전시관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세종시, 생명과학단지와의 관계 속에서 여건을 분석

□ 유사 사례 분석

❍ 오송전시관 건립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서 오송전시관 기본구상 수립에 반영

❍ 유사 사례의 분야로는 기업간 거래, 각종 박람회, 전시회 공간 등을 조사

□ 기본구상 수립

❍ 오송전시관 건립의 기본방향

❍ 오송전시관 내 활동 및 프로그램의 범위

❍ 오송전시관 운영계획

❍ 오송전시관 재원조달 계획

□ 타당성 분석

❍ 개략적인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정책적 타당성 분석

2. 연구 방법

□ 통계 및 문헌 분석

❍ 오송 전시관 주변 여건 분석을 위한 문헌 및 통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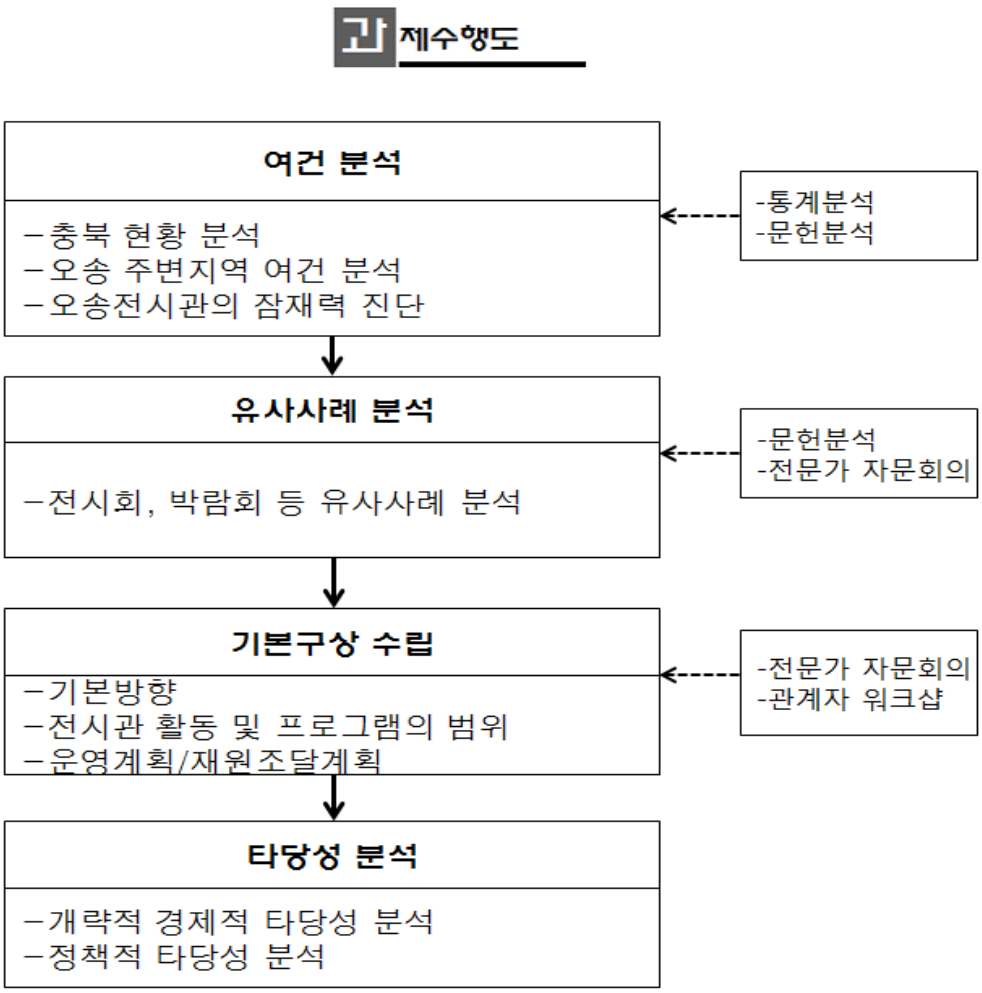
❍ 오송 전시관 유사 사례 파악을 위한 문헌 분석

□ 전문가 및 관계자 워크샵

❍ 지역의 현안과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시·도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오송전시관 기본 구상 수립

❍ 전시관 건립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시행

<그림 1> 과제 수행도



제2장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제1절 국내 유사 사례 분석
제2절 국외 유사 사례 분석

제2장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제1절 국내 유사 사례 분석

1. 대구 엑스코

□ 개요

❍ 대구 엑스코(EXCO)는 지역특화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시회를 통해 무역인프라로서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1)]
- 엑스코는 섬유, 기계, 안경, 신재생에너지, 첨단 디스플레이 등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시회를 기획, 개최함[2)]

❍ 엑스코는 한국의 녹색성장을 대표하는 친환경건축물인 그린컨벤션센터임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집광채광, 빗물 재활용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친환경 컨벤션센터임

❍ 역사, 문화, 시장, 산업을 연결하는 메가폴리스의 중심에 위치한 국제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임
- 고속도로, 공항, 철도와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
- 대구·경북권, 경남권, 충청권을 포함하여 1,400만 명의 잠재력 있는 소비시장과 대구성서산업단지, 구미산업단지, 포항산업단지 등 22개의 산업단지가 있음
- 전통문화유산과 전시컨벤션문화가 어우러진 관광비즈니스를 제공
- 국제뮤지컬페스티벌, 국제오페라축제, 한방문화축제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를 위한 전시컨벤션을 개최함

1) 대구엑스코(http://www.exco.co.kr)
2) 위키백과 엑스코 검색(http://ko.wikipedia.org)

❍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90

❍ 사업명: 대구종합무역센터의 무역회관 및 종합전시장 조성사업[3)]

❍ 사업비: 건설비 1,800억 원/확장사업 892억원(국비 446억원, 대구시·경상북도 346억원)[4)]

❍ 사업주체: 대구시와 민간기업이 공동투자(확장사업: 대구시와 경상북도 공동투자)

❍ 운영주체: (주)EXCO 대구전시컨벤션센터

❍ 사업면적: 부지면적 43,014(기존 20,862㎡)/건축연면적 145,952㎡(확장 이전: 88,310㎡)[5)]

❍ 사업기간: 1997년 5월 ~ 2000년 12월(확장사업: 2008년 12월 ~ 2011년 5월)[6)]

<그림 2> 대구 엑스코

자료: 대구엑스코(http://www.exco.co.kr)

3) 연합뉴스(대구지역 물류시설 확충 본격화, 1996년 3월 6일)
4) 한국경제(대구'컨벤션센터' 19일 문연다, 2001년 4월 16일)
한국관광신문(대구엑스코 제2의 전시컨벤션 역사쓴다, 2011년 5월 26일)
5) 매일경제('엑스코' TK 비즈니스 중심지부상, 2011년 8월 15일)
국토일보('엑스코 확장 건립공사 CM용역사업 발주, 2008년 10월 13일)
6) 한국경제(대구'컨벤션센터' 19일 문연다, 2001년 4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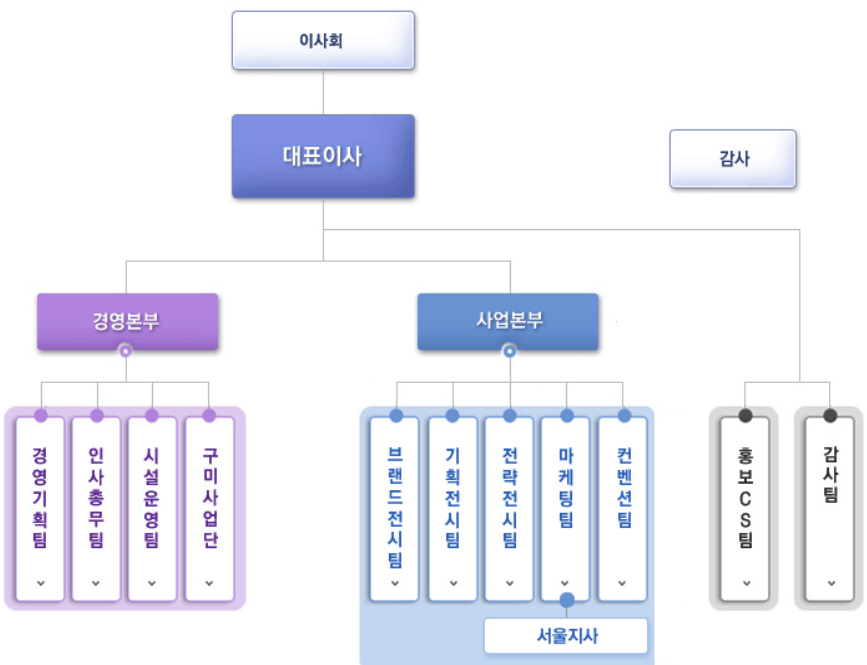
☐ 조직구성

❍ 엑스코는 이사1명, 경영본부 32명, 사업본부 31명, 홍보CS팀 2명, 감사팀 1명으로 구성됨[7)]

– 경영본부는 경영기획팀 6명, 인사총무팀 9명, 시설운영팀 6명, 구미사업단 11명으로 운영함

– 사업본부는 브랜드전시팀 6명, 기획전시실 5명, 전략전시팀 4명, 마케팅팀 9명, 컨벤션팀 7명으로 운영함

<그림 3> 대구 엑스코 조직 구성



자료: 대구엑스코(http://www.exco.co.kr)

7) 대구엑스코(http://www.exco.co.kr)

☐ 사업내용

❍ 전시회 유치, 기획, 운영사업[8)]

- 네트워킹과 마케팅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시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장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채로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
- 지역특화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등을 기반으로 한 유망 분야의 전시회를 자체 기획, 개최하여 성장시킴
- 주최자와 협력하여 전시회 유치지원, 회의 기획, 예산관리, 운영, 진행 등을 담당하는 국제회의전문용역사(PCO)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교육 및 연계사업

- 도·농간 자매결연(1사1촌)을 통해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지원, 지역 어린이 문화체험기회 제공, 지역 축제 홍보지원 및 후원, 체육교류활동 등을 수행함
- 대구대학교 발달장애인 고등교육기관인 K-PACE센터와 발달장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턴십을 통해 발달장애학생에게 직업적응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공익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2013년을 시작으로 엑스코 서포터즈(20명)를 모집하여 온라인 및 SNS를 통해 엑스코 관련 정보 및 전시를 공유하고 홍보함
-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관광콘텐츠 연계사업, MICE 연계 의료관광 마케팅을 통한 한국의료관광 발전사업 등을 추진함

❍ 연구사업

- 2011년 7월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내부 행사인 엑스코포럼을 개최함
- 엑스코포럼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정보 및 지식을 교류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직원의 업무 능력 개발과 업무 혁신을 추구하는 활동임

8) 대구엑스코(http://www.exco.co.kr)

☐ 시설운영

❍ 주요시설로 컨벤션 홀, 전시홀, 전시지원시설, 리틀소시움, 엑스코몰 등이 있음[9)]

<표 1> 대구 엑스코 시설

층	시설	내용
4,5층	컨벤션 홀	-다목적 전시컨벤션홀, 오디토리움, 회의실이 한 층에 배치되어 컨벤션 개최에 편리함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사구성이 가능함 -오디토리움은 극장식 공간으로 컨벤션, 회의, 이벤트 및 공연 등의 다양한 분야의 행사개최가 가능하고, 동시통역실, 연습실, 대기실, 넓은 로비 등을 갖추고 있음
3층	전시홀& 회의실	-전문전시장과 19개 회의실이 있어 대규모 컨벤션, 학술대회 등의 다양한 분과회의, 포스터세션, 부대전시회가 가능한 특별 공간임
2층	회의실& 전시지원시설	-행사 개최 시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능한 전시지원시설이 있음 -전화, 인터넷, 팩스, 복사, 사무용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센터가 있어 비즈니스의 편리함을 제공함
1층	전시홀	-개막식, 커피브레이크, 리셉션 등의 활용이 가능한 1층 원형로비 등의 부대시설이 있음
지하1층	리틀 소시움& 주차장	-리틀 소시움은 어린이를 위한 직업체험테마파크임
지하2층	엑스코 몰& 주차장	-엑스코몰은 수입가구, 혼수가구, 입주가구, 홈인테리어 등의 명품가구를 전시, 판매하는 가구전문쇼핑몰임
지하3,4층	주차장	-700여대 수용

자료: 대구엑스코(http://www.exco.co.kr)

☐ 사업성과

❍ 2010년 매출 163억 4000만원, 순이익 3억원 달성[10)]

❍ 엑스코는 연간 2억원 이상 에너지 절감효과로, 녹색성장을 대표하는 건물로 평가받음

9) 대구엑스코(http://www.exco.co.kr)
10) 매일경제('엑스코' TK 비즈니스 중심지부상, 2011년 8월 15일)

2. 일산 킨텍스

□ 개요

- ❍ 일산 킨텍스(KINTEX)는 세계적인 수준의 전시, 컨벤션을 유치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무역 마케팅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건립[11)]
  - – 단일 전시장 10만㎡ 면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국제 전시를 개최할 수 있음
- ❍ 전시 관련 업무를 하나의 전시정보시스템으로 구축, 첨단 참관객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유비쿼터스 전시장임
- ❍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그린 전시·컨벤션센터이며, 화재 감지시스템 및 내진 설계가 적용된 최첨단 전시·컨벤션센터임
  - – 전력 시스템으로 연간 10억 원이 넘는 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음
- ❍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8
- ❍ 사업명: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
- ❍ 사업비: 1단계 2,315억 원, 2단계 3,400억원(경기도, 고양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공동출자)
- ❍ 사업주체: 경기도, 고양시, KOTRA
- ❍ 운영주체: (주)킨텍스

11) 일산킨텍스(http://www.kintex.com)

<그림 4> 일산킨텍스

자료: 일산킨텍스(http://www.kintex.com)

❍ 사업면적: 부지면적 426,905㎡/건축연면적 339,503㎡

❍ 사업기간: 2002년 12월 ~ 2005년 0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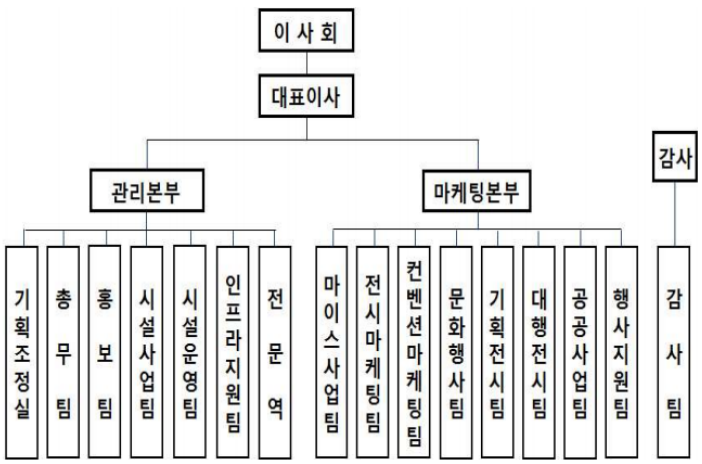
□ 조직구성

❍ 일산 킨텍스는 2본부 1실 14팀 1전담반, 총 95명(임원 4명, 직원 91명)으로 구성됨[12)]

- 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됨
- 관리본부는 인사, 조직, 예산운영, 시설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마케팅본부는 국내외 전시회 및 회의 임대사업, 주관 및 대행 전시사업을 수행함

12) 일산킨텍스(http://www.kintex.com)

<그림 5> 일산킨텍스 조직 구성



자료: 일산킨텍스(http://www.kintex.com)

☐ 사업내용

❍ 전시지원사업[13)]

- 해외 전시장과 전략적 제휴 확대 및 공동사업 개발, 수출상담회 지원을 통한 전시회 국제화 등 국내외 전시 컨벤션 유치를 위한 적극적 마케팅활동임
- 소규모 전시회의 전략적 M&A를 통해 차별화된 자체 전시회를 육성함(IMAC, SENDEX 등을 자체 개발)
- 기타 판매, 지원시설, 광고 및 부가수익사업개발 등 고객만족을 기반으로 한 부가사업 활성화
- 킨텍스내 어디에서나 무선인터넷, PDA단말기, 전시단말기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KIOSK(터치스크린)를 통해 전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전시, 컨벤션, 이벤트 등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전시장을 제공함
- 전시관련 업무는 하나의 전시정보시스템으로 구축되어 모든 고객의 니

13) 일산킨텍스(http://www.kintex.com)

즈를 동일 시스템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구축

- 전시장을 이용하는 참관객의 편의를 위해 RFID(전자태그) 기술이 적용된 첨단 참관객 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교육 및 연계사업

- 킨텍스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의 공동협력을 통해 전시, 컨벤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경기도내 중소, 벤처기업의 내수 및 수출 등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컨텍스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공동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도내 기업을 위한 상호 정보제공 및 정기발간물 무료교환, 상호 협력사업 개발 및 운영,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지원, 행사개최 시 상호 시설물 이용 등의 지원 활동을 수행함
- 고양시교육청 및 협력업체의 추천 장학생을 지원, 이들을 대상으로 1대 1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체험학습활동을 수행
- 교육 관련 전시, 놀이형 체험교육, 직업테마 체험관, 과학교실, 쿠킹클래스, 공연 및 범죄예방교육 등 5세부터 12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육, 체험박람회 등을 개발하고 주최함
- 국제 시니어라이프 & 헬스케어 전시회 한국관 개설 등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들의 해외 진출사업을 지원함
- 2013년부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킨텍스 영 크리에이터'를 운영하여, 전시컨벤션 및 아이디어 발상, 기획 등의 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에게는 창의적인 발상의 기회를 제공, 기업에는 사회 공헌 캠페인을 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직접 수행할 수 기회를 제공함

□ 시설운영

❍ 주요시설로는 전시홀, 대회의실, 중소회의실 등이 있음[14)]

14) 일산킨텍스(http://www.kintex.com)

<표 2> 일산 킨텍스 시설

층	시설	내용
제1전시관		
3층	회의실, 그랜드볼룸	-그랜드볼룸은 연회, 리셉션, 공연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됨 -회의실은 중회의실, 통합회의실, VIP회의실이 있음
2층	회의실	-중회의실, 통합회의실이 있음
1층	전시장&기타	-총 5개홀, 이동식 칸막이로 분할 및 통합사용 가능 -전용주차장(지상) 2,000대 수용, 전문하역시설이 있음
제2전시관		
3,4층	회의실	-회의실은 대회의실, 통합회의실, 중회의실이 있음
1,2층	전시장	-이동식 무대배치가 있어 컨벤션, 이벤트 등 다목적 사용이 가능한 이벤트홀이 있음
지하1층	지하주차장	-전용주차장(지상/지하) 2,200대 수용가능
1~14층	기타	-MICE관련 업체 등이 입주한 오피스가 있음 -문화예술 야외공연장, 전문하역시설 등이 있음

자료: 일산킨텍스(http://www.kintex.com)

□ 사업성과

❍ 킨텍스는 연간 1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및 4천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효과를 거두고 있음[15)]

❍ 제2전시장 개장 이후 매출·경상이익이 2배로 증가함

– 2012년 매출액 462억원, 경상이익 111억원임

15) 일산킨텍스(http://www.kintex.com), 연합뉴스(킨텍스 제2전시장 개장 2년…매출·경상이익 2배↑, 2013년 9월 25일)

3. 창원 세코

□ 개요

- 2005년 설립한 창원 세코(CECO)는 기계, 중공업, 조선, 항공, 로봇 등의 지식기반 첨단산업의 대규모 산업벨트와 산업 현장 투어 프로그램과 연계한 전시, 컨벤션, 기업행사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16)]
- 창원 세코는 우수한 산업인프라와 풍부한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회의 및 쇼핑, 엔터테인먼트, 숙박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컨벤션 복합단지로 국제적 규모의 전시장, 회의실, 경남기업통합지원센터 등을 갖춘 전문 전시장임
-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123)
- 사업명: 창원컨벤션센터 건립사업
- 사업비: 770억원(국비:200억원, 도·시비:570억원)[17)]
- 사업주체: 경상남도, 창원시 공동투자[18)]
- 운영주체: 서울 코엑스가 위탁 운영, 경상남도, 창원시 협력

<그림 6> 창원 세코

자료: CECO창원컨벤션센터(http://www.ceco.co.kr)

16) CECO창원컨벤션센터(http://www.ceco.co.kr)
17) 경남도민일보(CECO·경남무역 '적자행진 죽~' 애물단지 될라,2007년 8월 27일)
18) 두산백과 창원컨벤션센터 검색, 경남도민일보(창원컨벤션센터, 코엑스에 위탁, 2004년 12월 30일)

❍ 사업면적: 부지면적 39,817㎡/건축연면적 60,240㎡

❍ 사업기간: 2002년 12월 ~2005년 7월[19)]

☐ 조직구성

❍ 창원 세코는 사업단장 1명과 경영기획팀, 관리팀, 마케팅팀, 전시팀 등의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됨[20)]

– 경영기획팀 3명, 관리팀 3명, 마케팅팀 7명, 전시팀 3명으로 운영함

<그림 7> 창원 세코 조직 구성

자료: CECO창원컨벤션센터(http://www.ceco.co.kr)

☐ 사업내용

❍ 전시지원사업[21)]

– 전시, 컨벤션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단계별 컨설팅, 효율적 운영 시스템, AV전문가의 모니터링 등을 제공

–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체계적인 MICE산업 및 산업전시회 육성정책 지원

❍ 교육 및 연계사업

– 매년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 2007년부터 CECO FORCE(전시컨벤션 전문 자원봉사자)를 운영함

19) 두산백과 창원컨벤션센터 검색
20) CECO창원컨벤션센터(http://www.ceco.co.kr)
21) CECO창원컨벤션센터(http://www.ceco.co.kr)

- CECO FORCE는 약 3개월에 걸쳐 총 10회의 전시컨벤션 관련 전문교육, CECO 개최 주요 전시컨벤션행사 실습, 행사 기획 체험, 대학생 컨벤션 유치 콘테스트 참가 등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운영되는 전시컨벤션 교육아카데미를 수료함
- 전시컨벤션 교육아카데미를 수료한 자원봉사자들이 우수한 인력풀로 활용되어 행사 주최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2013년을 시작으로 대학생 홍보단 경남마이스루키를 운영함
- 경남마이스루키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과 MICE관련 교육수료를 통해 경남의 MICE산업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소통의 길잡이로 활약함
- 경남마이스루키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경남지역 전시, 컨벤션, 축제, 여행지 등 MICE 주요행사 및 인프라에 대한 온라인 홍보활동과 경남에서 개최하는 대형 MICE행사, 마라톤 대회, 거리 퍼포먼스, 유니브엑스포 등의 참여를 통한 해당 산업의 관련 인프라 홍보 등이 있음
- 창원 세코의 전시컨벤션 연계관광 프로그램으로는 전통문화관광, 산업시찰관광, 자연생태관광, 한국문화체험관광 등이 있음

<표 3> 창원 세코 연계관광 프로그램

관광프로그램	내용
전통문화관광	해인사팔만대장경(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삼성궁, 김해수로왕릉
산업시찰관광	창원국가산업단지(삼성테크윈, STX조선, 두산중공업, LG전자 등)
자연생태관광	한려해상국립공원, 창녕우포늪(람사르협약등록),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한국문화체험	김해한옥마을, 도예 및 다도체험, 김치만들기, 템플스테이(통도사, 해인사)
레포츠체험	해양스포츠(통영, 남해, 거제), 골프(창원, 정산CC 등), 산청레프팅, 클레이사격
축제, 이벤트	진주유등축제, 진해군항제, 통영국제음악제, 거창국제연극제, 고성공룡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창원월드퍼레이드페스티벌, 거제바다로세계로축제 등
쇼핑·엔터테인먼트	어시장, 백화점, 대형쇼핑몰 및 아울렛, 재래시장, 멀티플렉스영화관
웰빙·온천	부곡온천, 마금산온천, 습지음식체험
한류관광	거제외도(겨울연가), 합천(태극기휘날리며), 밀양

자료: CECO창원컨벤션센터(http://www.ceco.co.kr)

❍ 연구사업

– 창원 세코는 각 부서별로 주제 및 동아리 팀원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총 4개의 CECO 사업단 학습동아리(Community of Practice: CoP) 운영함

<표 4> 창원 세코 학습동아리

학습동아리	내용
세·브·연 (세코사업단브랜딩 연구회)	- CECO 브랜드 확립을 위한 연구회 - 카피, 광고, 기업 이미지 등 실제 브랜딩 성공사례를 연구하고 실무 적용 방안을 모색
내·코 (내가 그리는 세코)	- 도면 프로그램 Sketchup을 학습하는 동아리 - Sketchup 프로그램을 통해 회의실, 전시장, 가구, 설비, 장비 등 증축될 CECO의 모습을 직접 구현함
컨·전·지 (컨벤션, 전시 지식인 되기)	- 컨벤션, 전시 기획을 위한 사회/인문지식을 공유하고, 언론을 통한 MICE 업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함 - 토론의 방식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
부가가치세법교육	- 세금계산서, 전표처리 등 부가가치세법을 주제로 하여 실무자 및 경영팀이 어울려 구성됨 - 세법학습과 지식공유가 이루어짐

자료: CECO창원컨벤션센터(http://www.ceco.co.kr)

□ 시설운영

❍ 창원 세코는 6층 규모의 건물로, 전시장, 회의실, 컨벤션홀, 옥외전시장, 경남기업통합지원센터 등을 갖추고 있음[22)]

– 경남기업통합지원센터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중소기업중앙회등의 사무공간을 제공함

❍ CECO는 주변의 호텔, 종합문화예술공간, 쇼핑·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이 연결되어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함

22) CECO창원컨벤션센터(http://www.ceco.co.kr)

<그림 8> 창원 세코 주변시설

자료: CECO창원컨벤션센터(http://www.ceco.co.kr)

<표 5> 창원 세코 시설

층	시설	내용
6층	회의실	- 7개실 분할, 중소회의, 연회 등 - 분할 및 통합이 용이하여 공간 활용도가 높고, 행사성격에 따른 고객맞춤형 회의환경을 제공함
	기타	- 사무실, CECO 사업단 사무실
3층	컨벤션홀	- 8개국 동시통역시스템, 최첨단 A/V 시스템을 갖추어 국제회의, 문화이벤트 등 다양한 공간연출이 가능한 다목적 홀 - 1,090㎡의 넓은 로비가 있어 연회장소로 활용 가능함
	전시장	- 전시회, 콘서트 ,이벤트 등의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 - 견고한 바닥하중과 높은 천고, 화물하역장과 슬로프를 갖춘 산업전문 전시장임
	회의실	- 2개실 분할, 국제회의, 심포지엄, 연회 등을 위한 공간 - 분할 및 통합이 용이하여 공간 활용도가 높고, 행사성격에 따른 고객맞춤형 회의환경을 제공함
	기타	- 사무실, 주차장, 옥외전시장, 풀만호텔 연결다리
1층	경남관광공예 명품관	- 명품전시관, 기획전시관, 홍보관, 체험관, 전시판매관(1,000여점) 등이 있음 - 판매관은 한지공예, 도자공예, 자수, 섬유, 칠기, 귀금속, 장신구, 유리공예, 전통식품 등 관광기념물 및 특산품 1,000여점을 전시, 판매함 - 명품전시관은 경상도내 중요무형문화재, 장인, 명장의 혼이 담긴 명품(도자, 금속, 목, 매듭공예, 염장, 두석장, 나전장 등)을 전시, 판매함
	귀빈실	- 전시, 회의 행상 VIP 접대
	기타	- 사무실, 예약상담실, 뷔페레스토랑, 주차장
1층, 3~6층	경남기업 통합지원센터	- 기업관련 민원 원스톱 서비스 지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신용보증재단, (재)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표준협회가 있음

자료: CECO창원컨벤션센터(http://www.ceco.co.kr)

□ 사업성과

– 2012년도 기준 사업성과는 다음과 같음(경상남도, 2013)

<표 6> 창원 세코 운영(2012년 기준)

개최기간	전시회명	전시규모	참관객(명)	주 전시품목	상담실적
12.4.19~4.22	국제식품 &기계산업전	250부스	24,500	식품관련 기계	4백만불
12.5.3~5.6	국제로봇 콘텐츠쇼	448부스	18,235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2백만불
12.5.22~5.25	국제자동화 정밀기기전	430부스	27,841	공장자동화 및 금속가공기기	679백만불
12.10.16~11.24	한국국제기계 박람회	432부스	31,324	금속공작·가공 기계 등	910백만불
12.11.21~11.24	한국국제용접 및 절단기술전	450부스	16,300	용접기, 용접자동화, 절단기기 등	140백만불
12.11.28~12.1	국제공구 및 산업용재산업전	380부스	4,297	절삭공구, 공작기기 등	9백만불

자료: 경상남도(2013)

4. 서울 코엑스

□ 개요

❍ 서울 코엑스(COEX)는 MICE 산업이 신성장동력 육성산업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정책적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목적아래 설립된 종합전시관임[23]

– 첨단 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의 메카이자 국제적인 전시회, 회의,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임

❍ 코엑스의 주요활동 및 업무는 국제회의, 전시회, 국제 문화·예술행사 등을 개최하고, 해외 유수의 바이어와 국내 수출입 업체를 직접 연결하는

23) 코엑스(http://www.coexmall.com), 두산백과 코엑스 검색

등의 교역 증대의 역할임

- 코엑스 아트홀, 코엑스아티움 등의 개관으로 초대형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함
- 코엑스는 녹색경영 비전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녹화사업 등 적극적으로 친환경 전시컨벤션 인프라를 구축함
- 위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한국종합무역센터
- 사업비: 한국무역협회 100% 출자[24],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건설비 74억원 추정[25]
- 사업주체: 한국무역협회 산하 종합전시장 건립추진위원회[26]
- 운영주체: (주)코엑스(COEX)
- 사업면적: 건축 부지면적: 36,364㎡, 연면적: 430,000㎡
- 사업기간: 1978년 8월 ~ 1988년 9월(산업통상자원부, 2002)

<그림 9> 서울 코엑스

자료: 코엑스(http://www.coexmall.com)

24) 네이버지식백과 한국종합전시장(COEX)검색
25) 국가기록원 무역박람회 검색(http://www.archives.go.kr)
26) 국가기록원 한국종합전시장 검색(http://www.archives.go.kr)

☐ 조직구성

❍ 코엑스는 이사, 감사팀, 홍보·CS실, 전시컨벤션사업본부, 센터운영사업본부, 기술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로 구성됨

<그림 10> 코엑스 조직구성

자료: 코엑스(http://www.coexmall.com)

☐ 사업내용

❍ 전시/국제회의 기획운영사업

- 국내 최초 국제전시협회(UFI)인증을 획득하여 세계 수준의 전시회 개최의 역량을 인정받아 다양한 전시회를 직접 주최함
- 오랜 전시 노하우, 기업간 네트워크, 연관기관을 활용한 홍보 등을 통해 행사 용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함

– 국제회의 유치, 광고홍보, 회의 운영, 수송업무, 숙박, 관광프로그램 등 국제회의에 관련된 토탈 서비스 업무를 수행함

❍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 코엑스는 녹색기술과 IT의 융합을 통해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함

– BEMS는 전시컨벤션센터, 코엑스몰, 트레이드타워, 아셈타워 등 에너지 사용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제어하여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시스템임

☐ 시설운영

❍ 주요시설로 전시장, 회의실, 공연장, 코엑스몰, 오피스 등이 있음[27)]

<표 7> 코엑스 시설

층	시설	내용
5,6층	공연장	- 코엑스아티움
4층	회의실, 공연장, 무역교육관	- 회의실로 오디토리움 회의실, 컨퍼런스룸이 있음 - 공연장의 기능을 하는 컨퍼런스룸이 있음 - 무역에 관한 체험을 제공하는 무역교육관이 있음
3층	전시장, 회의실	- 전시장 Hall C, Hall D가 있음 - 회의실로 오디토리움, 컨퍼런스룸, Hall E가 있음 - 영화, 콘서트, 시상식 등이 가능한 공연장으로 오디토리움이 있음
2층	공연장	- 공연장으로 코엑스 아트홀이 있음
1층	전시장, 회의실, 상사전시장	- 전시장 Hall A, Hall B가 있음 - 회의실로는 그랜드 볼룸이 있음 - 상사전시장은 전문 수출입업체 등이 입주해 있어 사무능률을 극대화하고, 전문전시회 및 국제회의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가짐
지하 1,2층	코엑스몰, 김치박물관	- 코엑스몰, 김치박물관 등이 있음
지하4층 - 54층	오피스	- 트레이드 타워는 최적의 사무실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무역협회를 비롯한 수출입 유관기관이 입주해 있음 - 아셈타워는 IT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신업체들이 주로 입주해 있음

자료: 코엑스(http://www.coexmall.com)

27) 코엑스(http://www.coexmall.com)

<표 8> 국내 유사 시설 비교

구분	대구 엑스코	일산 킨텍스	창원 세코	서울 코엑스
사업명	대구종합무역센터의 무역회관 및 종합전시장 조성사업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창원컨벤션센터 건립사업	-
사업비	건설비 1,800억 원/확장사업 892억원(국비 446억원, 대구+경북 346억원)	1단계 2,315억 원, 2단계 3,400억원(경기+고양+KOTRA)	770억원 (국비:200억원, 도·시비:570억원)	한국무역협회 100% 출자,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건설비 74억원 추정
사업주체	대구+민간기업(확장사업: 대구+경북)	경기+고양+KOTRA	경남+창원	한국무역협회 산하 종합전시장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주체	(주)EXCO 대구전시컨벤션센터	(주)킨텍스	서울 코엑스 위탁운영, 경남+창원 협력	(주)코엑스(COEX)
사업내용	-전시회 유치, 기획, 운영 -지역특산물 홍보, 어린이문화체험, 발달장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엑스코 서포터즈 육성 등의 교육 및 연계사업 -엑스코포럼 등 내부 정보 및 지식교류의 활동	-전시지원사업, 전시정보시스템 구축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중소기업 지원, 장학생 지원, 킨텍스 영 크리에이터 운영 등의 교육 연계사업	-전시지원사업 -자원봉사자 육성, 대학생 홍보단 운영, 관광프로그램 연계 등의 교육연계사업 -내부 부서별 학습 동아리 활동	-전시/국제회의 기획 운영사업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주력분야	섬유, 기계, 안경, 신재생에너지, 첨단 디스플레이 등 지역 특화산업	-	기계, 조선, 로봇 등 지식기반 첨단산업	-
사업면적	부지면적 43,014(기존 20,862㎡)/건축연면적 145,952㎡(확장 이전: 88,310㎡)	부지면적 426,905㎡ /건축연면적 339,503㎡	부지면적 39,817㎡/ 건축연면적 60,240㎡	부지면적: 36,364㎡, 연면적: 430,000㎡
시설배치	-컨벤션홀(4,5F) -전시홀,회의실(3F) -회의실,전시지원 시설(2F) -전시홀(1F) -리틀소시움,주차장 (지하1F) -엑스코몰,주차장 (지하2F) -주차장(지하3,4F)	<제1전시관> -회의실,그랜드볼룸 (3F) -회의실(2F) -전시장,기타(1F) <제2전시관> -회의실(3,4F) -전시장(1,2F) -지하주차장(지하1F) -기타(1-14F)	-회의실 등(6F) -컨벤션홀,전시장, 회의실 등(3F) -경남관광공예명품관,귀빈실 등(1F) -경남기업통합지원센터(1,3-6F)	-공연장(4,5F) -회의실,공연장,무역교육관(4F) -전시장,회의실(3F) -공연장(2F) -전시장,회의실,상사 전시장(1F) -코엑스몰,김치박물관(지하1,2F) -오피스(지하4-4F)
건물층수	지하4층-지상5층	지하1층-지상14층	지상1-6층	지하4-지상54층

제2절 국외 유사 사례 분석

1. 프랑스 라빌레뜨 과학산업관

□ 개요

❍ 라빌레뜨 과학산업관(Cité des Sciences et de l'Industrie)은 과학 및 과학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과학기술산업문화센터(Cultural Centers of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CCSTI)로, 해당 전시관은 산업 및 상업적 특성을 갖는 공공시설로 분류됨[28)]

– 어린이 및 청소년을 비롯하여 대중들에게 과학기술을 제공하고, 과학 및 산업기술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짐

❍ 2008년에 열린 제 3회 평화계획을 위한 국제쇼(International Salon for Peace Initiatives) 등의 다양한 회의를 개최하여 토론의 장소를 제공함

❍ 라빌레뜨 과학산업관은 음악박물관, 콘서트장 및 그랜드 홀, 천체투영관, 어린이전시관 등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과학산업관 주변으로는 공원, 운하 등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조화됨[29)]

❍ 위치: 30 avenue Corentin Cariou 75019 Paris FRANCE

❍ 사업주체: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와 문화통신부의 공동 추진
(1997년 대통령에 의해 라빌레뜨 재생 프로젝트 사업 추진)

❍ 사업면적: 부지면적 1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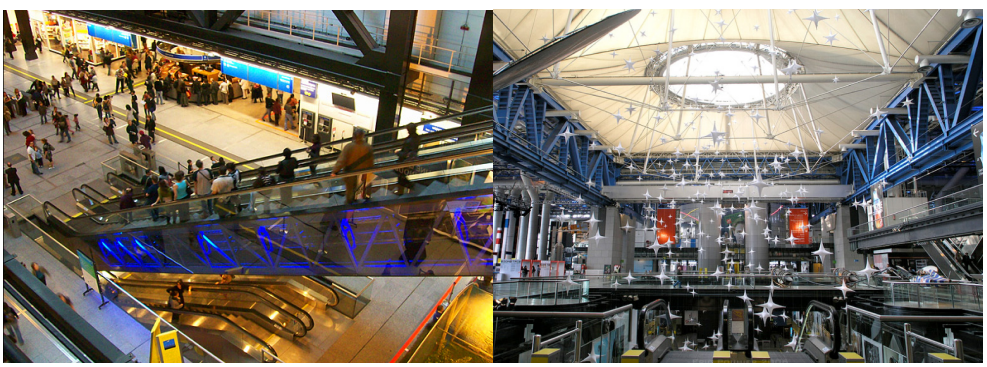
❍ 사업기간: 1980년 9월 ~ 1986년 3월[30)]

28) universcience 홈페이지 (http://www.universcience.fr)
29) The Daily Telegraph, "France: Insider's guide to Paris", (http://www.telegraph.co.uk/travel/destination/france/paris/136765/Paris-free-things-to-do.html)
30) wikipedia, Cité des Sciences et de l'Industrie 검색 (http://www.wikipedia.org)

<그림 11> 라빌레뜨 과학산업관

자료: 구글 Cité des Sciences 이미지 검색(http://www.google.co.kr)

<그림 12> 라빌레뜨 내부



자료: wikipedia, Cité des Sciences et de l'Industrie 검색(http://www.wikipedia.org)

❍ 5가지 주요한 목표로 문명의 장소, 교육의 장소, 지식의 장소, 사회발전의 장소, 토론의 장소를 지향함(현혜정·김경훈, 2010)

- 현대의 모든 것들이 미래의 지적 요소가 되도록 돕는 문명의 장소임
- 국가적인 교육과 연계하여 지식을 얻고 탐색하는 교육의 장소임
- 아동과 성인, 일반인과 연구자 등을 비롯하여 모두에게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써 지식의 장소임
- 전시를 통해 사회 각 분야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상호작용하는 사회발전의 장소임

– 매년 국가적·국제적 회의를 개최하여 과학자들과 일반대중들이 모여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소임

☐ 조직구성

❍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와 문화통신부의 공동책임아래, 2010년 라빌레뜨 과학산업관과 발견의 전당 박물관이 협력하여 UNIVERSESCIENCE를 설립[31)]

❍ UNIVERSESCIENCE는 과학과 기술 문화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산업관과 박물관의 협력을 공식화하고 관리함

☐ 사업내용

❍ 교육 및 연계사업(현혜정·김경훈, 2010)

– 라빌레뜨 과학산업관 학생프로그램으로 일회성 프로그램과 중단기 프로그램이 있음

– 일회성 프로그램에는 전시물 워크숍 활동이 있고, 중단기 프로그램에는 빌레뜨 교실, 특별강의, 연구자와의 토론 등이 있음

<표 9> 라빌레뜨 과학산업관 학생교육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내용
일회성 프로그램	전시물 워크숍 활동	- 학교 단체관람 학생들에게 전시물을 이용한 워크숍과 시범 제공
중단기 프로그램	빌레뜨 교실	- 1주일간 진행되며 초, 중급반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참가 시 주제선정 후 미리신청 해야 함
	특별강의	- 초, 중학생 대상으로 일주일 1회 한달 과정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과학기술을 주제로 파리지역의 과학, 문화 자원을 도구로 활용함
	연구자와의 토론	- 연구자와의 만남을 통해 과학기술문제 토론하는 프로그램

자료: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2004), 현혜정·김경훈(2010)에서 재인용

31) universcience 홈페이지 (http://www.universcience.fr)

❍ 라빌레뜨 과학산업관 교사교육프로그램으로 교사교육프로그램은 일회성 프로그램과 중단기 프로그램, 장기심화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음
- 일회성 프로그램에는 단체견학을 위한 특별지원이 있고, 중단기 프로그램에는 초등학교 교사 훈련을 위한 시테교실, 중등학교 교사훈련이 있음
- 장기심화프로그램은 훈련과정프로젝트가 있고, 온라인프로그램은 온라인 전시, 온라인 활동 등이 있음

<표 10> 라빌레뜨 과학산업관 교사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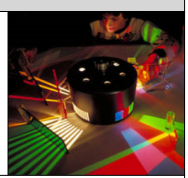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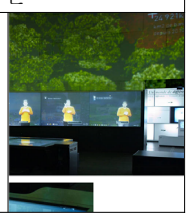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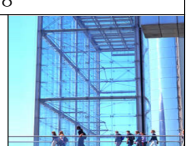
구분	프로그램	내용
일회성 프로그램	단체견학을 위한 특별 지원: 견학안내서 Citedocs'	- 단체견학을 돕는 안내자료집으로 일부는 교사용, 나머지는 학생용으로 구성되어 각각도입, 전시물 설명, 전시물에 대한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전시물관람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함
중단기 프로그램	초등학교 교사 훈련-시테교실	- 교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단체관람시 학생들이 알기를 기대하는 과학, 기술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교사가 교수방법을 계획하고 전시물의 내용이나 중요점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중등학교 교사훈련	- 교과 통합적인 접근과 과학산업관의 자료를 직접 접해볼 수 있도록 워크숍과 회의등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방문하는 것을 준비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과학산업관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 틀 속에서 자유로운 방식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함
장기심화 프로그램	훈련과정 프로젝트	- 과학산업관의 전시에 대해 교수목표의 기초를 훈련함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전시	- 특별전시마다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하여 자료 및 온라인 활동 제공
	온라인활동	- 주제를 가지고 원리, 온라인 시뮬레이션, 게임 등의 다양한 활동 제공

자료: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2004), 현혜정·김경훈(2010)에서 재인용

☐ 시설운영

❍ 주요 시설은 상설전시관(13관), 비상설전시관(4관), 천체투영관, 어린이체험관, 아르고호 잠수함, 디지털교차로, 디지털회의장 등이 있음[32)]

<표 11> 라빌레뜨 과학산업관 시설

층	시설	내용
3층	상설전시관 (2관)	-빛과 오락, 우주이야기에 대한 상설전시관 2관을 운영 -빛과 오락관에서는 빛의 전파, 색의 인지, 3D 이미지, 시각적 환영 등의 전시를 통해 빛과 시각의 물리적 메커니즘을 보여줌 
	비상설전시관	-2개 관을 운영
	천체투영관	-실감영상을 통한 우주탐험과 천체 전문가 모임 등의 공간
2층	상설전시관 (11관)	-에너지, 그린하우스, 사람과 수송, 사람과 유전자, 과학의 실제, 수학, 소리, 핀홀, 대뇌, 혁신갤러리, 지구보기 등 상설전시관 11관을 운영 -에너지관은 과도한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 초래와 유한한 천연가스 자원 등 전 세계가 진면한 중요한 에너지 문제의 여러 면을 보여주는 공간임 
	비상설전시관	-2개 관을 운영
1층	어린이체험관	-2-7세를 위한 어린이체험관, 5-12세를 위한 어린이체험관을 운영
	아르고호 잠수함	-1950년대 프랑스 군대가 사용했던 아르고호 잠수함의 모든 장비와 시설을 체험
	기타	-상영관,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 강당 등의 시설을 운영
지하1층	디지털 교차로	-특히, 15-25세 청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디지털의 실현을 돕기 위한 공간으로, 스스로 생산, 제작, 모델링 작업을 스스로하고,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훈련할 수 있는 작업장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디지털 회의장	-컨퍼런스 기업미팅, 사교회 등을 위한 공간임
	기타	-과학역사도서관, 과학산업도서관, 음성안내소, 건강정보센터를 운영
지하2층	기타	-아쿠아리움, 상영관, 과학산업도서관을 운영

자료: 라빌레뜨 과학산업관 홈페이지(http://www.cite-sciences.fr)

32) universcience 홈페이지 (http://www.universcience.fr)

□ 사업운영비

❍ 예산은 프랑스 정부와 파리시로부터 지원받고, 예산의 78%를 정부에 의존함[33)]

- 2013년 국가 보조금 1,060억원은 984억원은 운영비로, 75억원은 투자비로 할당함
- 기관재원은 티켓, 시설대여, 전시판매, 제품판매 등의 운영수입으로 265억원임
- 국가 보조금 중 주로 전시회 관련 투자재원은 9억임
- 2013년 총 투자금액은 185억원 CP, 현금유출입은 38억원임

❍ 필립스, 톰슨, 벤츠, 소니 등의 대기업들이 스폰서로 참여함

2.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 개요

❍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Chicago)은 과학, 기술, 의학, 공학 등의 분야가 가진 많은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중들에게 흥미와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목적을 갖는 산업박물관임[34)]

- 산업기술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전시관은 기업 또는 기업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업밀착형 운영시스템을 가짐[35)]
- 특히, 아이들에게 과학적 탐구와 창의성을 자극하도록 다양한 전시를 통해 체험하고 학습하게 함

❍ 위치: 5700 S. Lake Shore Drive Chicago, IL 60637

❍ 사업주체: 시카고 파크 디스트릭트

33) universcience 홈페이지 (http://www.universcience.fr)
연합뉴스(<유럽 핵과학문화>③과학강국 산실 과학관(끝), 2010년 11월 17일)
34)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sichicago.org)
35) 네이버 지식백과 과학산업 박물관 검색

❍ 운영주체: the Commercial Club of Chicago[36)]

❍ 사업면적: 부지면적 65,544㎡

❍ 사업기간: 1926년 ~ 1933년(현 과학산업박물관 건물은 1893년에 세계콜롬비아박람회를 위해 건설되었음)

<그림 13>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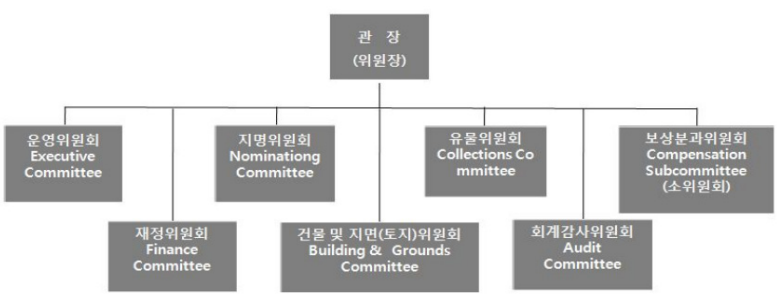
자료: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sichicago.org)

☐ 조직구성

❍ 관장, 운영위원회, 재정위원회, 지명위원회, 건물 및 토지위원회, 유물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보상분과위원회로 구성됨(문화체육관광부, 2011)

– 운영위원회가 박물관 경영의 이사회의 권한을 가짐

<그림 14>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조직구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1)

36) 위키백과 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Chicago) 검색(http://en.wikipedia.org)

☐ 사업내용

❍ 전시지원사업[37)]

- 공공프로그램으로 데일리라이브체험, 전시 및 특별 체험, 과학극장쇼, 특별하룻밤 이벤트 등이 있고, 다양한 상설전시를 지원함
- 기업관은 관람객에게 사업의 원리를 설명하고 기업 활동을 알림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게 함
- 시카고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의 기업 기기, 자료 등을 제공[38)]
- 가상전시관은 과학, 의학, 법률, 사업분야 등 주요 내용을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보여주고 의학관에서는 직접 관람객의 몸을 진단하게 함

❍ 교육 및 연계사업(송성수, 2010)

- 학습실험실, Teaching with Technology, Inspiring Minds in Action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
- 학습실험실은 단체 학생을 대상으로 담당교사의 지도아래 약 75분간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임
- Teaching with Technology은 시카고 지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업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워크숍으로, 이를 통해 교사들이 수업에서 해당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함
- Inspiring Minds in Action은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3년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과학기술자와의 면담을 통해 직업선택에 도움을 줌
- Science Club Network은 국립과학재단(NSF)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들로 구성된 과학클럽을 지원하고, 과학, 수학, 기술 등에 대한 실험을 직접 체험하게 함
- Play, Fun, Science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과 놀이가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교사와 부모가 함께 참여함

37)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sichicago.org)
38) 두산백과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검색(http://www.doopedia.co.kr)

☐ 시설운영

❍ 주요 시설로 총 75개의 전시실, 과학상영관, 강당, 등이 있음[39)]

<표 12> 시카고 과학박물관시설

층	시설	내용	
3층	교육연구소, 전시관	- 교육연구소는 인간의 안구를 해부해보는 라이브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	
2층	Fab Lab, 과학수사연구소, 전시관	-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체험실 등이 있음 - Fab Lab은 첨단 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통해 직접 제조 및 실험을 하는 작은 규모의 작업장임	
		- 유전학 및 병아리 부화장, 자신의 DNA와 지문 보기 등의 체험을 제공함	
1층	그룹센터, 과학상영관, 헨리우주크라운센터, 전시관, 옴니맥스상영관	- 교육을 위한 과학상영관, 강당, 옴니맥스 상영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농업기술전시실 등이 있음 - 헨리크라운우주센터는 우주탐사기술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영화스크린을 갖추고 있음	

자료: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sichicago.org)

☐ 사업운영비

❍ 사업예산 규모는 약 5천만 달러 내외로, 정부후원금, 민간후원금, 투자수입, 입장료 등으로 운영됨

39)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sichicago.org)

3. 일본과학미래관

☐ 개요

- ❍ 일본과학미래관(National Museum of Emerging Science and Innovation)은 첨단과학기술을 문화로 인식하고, 사회에 대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미래를 생각하며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공간임[40)]
  -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공유하여 지구의 미래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임
- ❍ 체험형전시관, 세미나, 각종 이벤트, 컨텐츠 제작 등의 활동을 통해 전시연구기관의 역할을 함
- ❍ 위치: 일본 〒135-0064 Tokyo, Koto, Aomi, 2－3－6
- ❍ 사업주체: 교육부, 국제통상산업부, 과학기술 진흥사업단
- ❍ 운영주체: 과학기술진흥기구[41)]
- ❍ 사업면적: 부지면적 19,636㎡/건축연면적 40,589㎡
- ❍ 사업기간: 1996년 7월 ~2001년 7월

<그림 15> 일본 과학미래관

자료: 일본 과학미래관 홈페이지(http://www.miraikan.jst.g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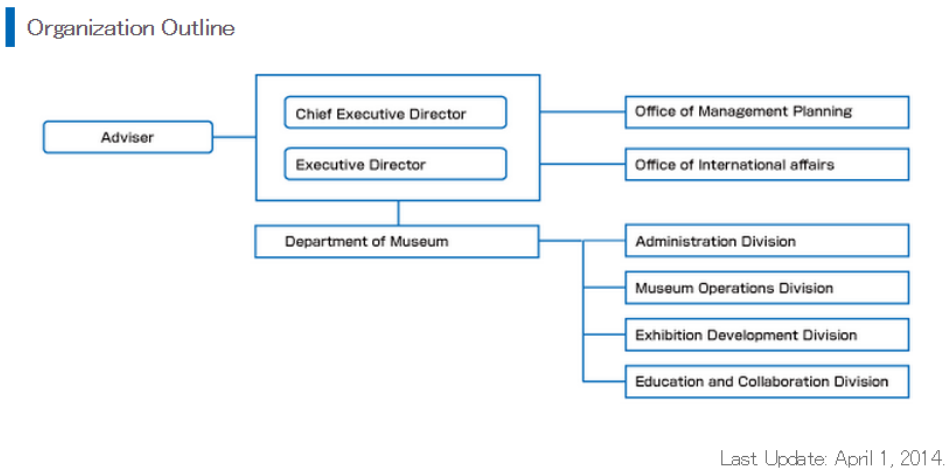
40) 일본 과학미래관 홈페이지(http://www.miraikan.jst.go.jp)
네이버 지식백과 일본과학 미래관 검색
41) 두산백과 일본과학미래관 검색(http://www.doopedia.co.kr)

☐ 조직구성

❍ 이사회, 총관장, 관장, 기획관리실, 국제업무실, 미래관팀으로 구성됨[42)]

– 미래관팀은 행정팀, 운영팀, 전시개발팀, 교육연구팀으로 구성됨

<그림 16> 일본 과학미래관 조직구성



자료: 일본 과학미래관 홈페이지(http://www.miraikan.jst.go.jp)

☐ 사업내용

❍ 교육 및 연계사업[43)]

– 과학 전파를 목적으로 독자적인 인재양성 시스템을 이용하여 과학미래관 내외에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하고 인재배출을 도모함

–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최장기간이 5년인 임기제직원으로 채용되고, 전시해설, 이벤트 및 전시기획 등의 활동을 하며, 임기 종료 후에는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경험을 가진 인재로서 연구기관과 대학, 과학관 및 박물관, 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2) 일본 과학미래관 홈페이지(http://www.miraikan.jst.go.jp)
43) 일본 과학미래관 홈페이지(http://www.miraikan.jst.go.jp)

– 과학미래관은 연구자·기술자, 미디어, 자원봉사자, 회원 및 방문객, 행정부, 학교, 일본 국내외의 과학관, 산업계의 연계와 네트워크 구축에 힘씀
– 과학미래관은 사업 시에 항상 연계된 조직 및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하여 첨단기술과 일반시민의 가교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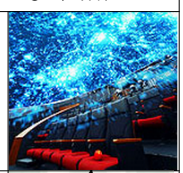
❍ 연구사업
– 기획전, 토크이벤트, 실험교실, 인터넷과 출판물 영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첨단과학기술을 전달하고, 과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한 표현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둠

□ 시설운영

❍ 주요 시설로, 회의실, 심벌존, 돔시어터, 전시관, 키즈존 등이 있음[44)]

44) 일본 과학미래관 홈페이지(http://www.miraikan.jst.go.jp)

<표 13> 일본 과학미래관 시설

층	시설	내용	
7층	홀, 회의실	- 회의, 전시 등을 위한 미래관 홀, 회의실 4실, 다목적 룸 등이 있음	
6층	돔 시어터	- 112석의 구형 시어터로, 초고정밀 3D영상 등 다양한 영상 시스템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상영하는 문화관임	
5층	상설전시관& 기타	- '세계를 탐색하다'의 주제로 상설전시가 진행됨	
3층	상설전시관 & 키즈존 & 기타	- '미래를 만들다'의 주제로 상설전시가 진행됨 - 미래 사회와 미래 생활의 형태를 그려보고 그 꿈이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 실현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공간임	
		- 호기심 놀이마당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체험하는 공간으로 호기심 놀이마당(키즈존), 실험공방 등이 있음	
1층	심벌존, 기획전시존, 뮤지엄샵	- Geo-Cosmos가 공중에 장식된 심볼전시관은 고해상도로 지구의 모습을 비추는 대표적 전시관임 - 뮤지엄샵은 서적, 실험, 관찰키트 및 우주와 지구환경에 관한 상품, 방문기념품 등 사이언스 잡화를 판매함	
		- Geo-Scope는 일본 국내외 과학자들과 연구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지구 관측 정보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보드가 있어 지구 규모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자료: 일본 과학미래관 홈페이지(http://www.miraikan.jst.go.jp)

☐ 사업운영비

❍ 예산 규모: 30억 엔 내외(송성수, 2010)

❍ 예산의 80-85% 이상은 공공기금(현, 문부과학성)에 의해 충당되고, 직접 수입과 민간수익의 비율이 매우 낮음

<표 14> 국외 유사시설 비교

구분	프랑스 라빌레뜨 과학산업관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일본과학미래관
사업주체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와 문화통신부의 공동책임 (1997년 대통령에 의해 라빌레뜨 재생 프로젝트 사업 추진)	시카고 파크 디스트릭트	교육부, 국제통상산업부, 과학기술 진흥사업단
운영주체	UNIVERSESCIENCE	the Commercial Club of Chicago	과학기술진흥기구
사업내용	- 전시지원사업 - 학생, 교사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교육연계사업	- 기업관을 통해 기업활동을 알리고, 가상전시관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등의 전시 지원사업 - 학습실험실 등 교육연계사업	- 과학 커뮤니케이터 양성, 다양한 집단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교육 연계사업 - 기획전, 토크이벤트, 실험교실 등의 연구사업
주력분야	-	지역특화산업	첨단과학기술
사업면적	부지면적 110,000㎡	부지면적 65,544㎡	부지면적 19,636㎡/건축연면적 40,589㎡
시설배치	- 전시관,천제투영관(3F) - 전시관(2F) - 어린이체험관, 아그로호 잠수함 등((1F) - 디지털교차로, 디지털회의장 등(지하1F) - 과학산업도서관 등(지하2F)	- 교육연구소, 전시관(3F) - Fab Lab, 과학수사연구소, 전시관(2F) - 그룹센터, 과학상영관, 전시관, 옴니맥스상영관 등(1F)	- 홀, 회의실(7F) - 돔시어터(6F) - 전시관 등(5F) - 전시관, 키즈존 등(3F) - 심벌존, 기획전시존,뮤지엄샵(1F)
건물층수	지하 2층-지상 3층	지상 1-3층	지상 1-7층

제3장
오송전시관 건립 여건 분석

제1절 충북 지역 여건 분석
제2절 오송 주변지역 여건 분석

제3장 오송전시관 건립 여건 분석

제1절 충북 지역 여건 분석

1. 일반 현황

□ 국토 내륙의 중심이자 교통의 중심지

❍ 충청북도 행정구역은 3개시, 8개 군이며 면적은 7,407.2㎢로 전국 면적의 7.4%에 해당하며 국토의 내륙중심에 위치하고 있음[45)]

-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충남, 대전, 경북, 전북에 둘러싸인 해안을 접하지 않는 국토내륙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
-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임야가 총면적의 67.2%를 차지하고 있으나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임야와 전답의 비중은 줄어들고 도로·철도용지와 대지, 공장용지 등의 비중은 점차 증기하는 추세임

❍ 2010년말 현재 충북의 도로연장은 6,699㎞로 전국 도로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별 전국대비 비중은 고속도로가 8.1%로 높은 비중을 차지

- 고속도로의 경우 수도권과 경부 및 호남권을 잇는 교통축의 내륙 중심부에 위치하여 일찍부터 발달함

❍ 충북의 철도교통망 시설은 서쪽으로는 경부선이, 동북부쪽으로는 중앙선·태백선에 의해 다른 지역과 연결되어 있고, 동서로 충북선이 연결됨

❍ 주요 교통시설로 청주시에 KTX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이 위치하여 전국을 1시간 이내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음

- KTX오송역은 서울, 부산, 목포 각 방향으로 연결되는 분기역으로서

45) 충청북도 통계정보시스템(http://stat.cb21.net)

연계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충북선과의 지선 연결을 통해 강원권과의 연계도 가능함

- 청주국제공항은 충북경제자유구역내에 위치한 중부권 유일의 국제공항이며, 오송·오창 등 산업단지와 인접하고, 대전, 청주 등 기존 중심도시와 세종시의 관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청주공항은 1997년 개항 당시 국제선 정기운항노선이 5개였으나, IMF 외환위기 당시 모두 폐지되었다가 중국과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점차 노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인구증가율의 감소와 노령화

❍ 2013년 현재 인구수 총 1,600,163명으로 전국대비 3.1%의 점유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644,062세대, 인구밀도 216.03명/㎢를 나타내고 있음[46)]

- 충북지역의 인구는 1980년대 수도권 집중의 영향으로 크게 줄었다가 1990년대에 접어들어 지역의 산업화 진전 등으로 생산인력이 유입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음
-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출산율의 저하 등으로 줄어들다가 2006년 이후에 새로운 산업단지 기반이 확충되고 기업이 유치되면서 인구증가율이 다소 증가하였음(충북발전연구원, 2011)

❍ 2013년 현재 인구증가율은 0.61으로 인구는 다소 증가추세에 있지만 고령인구비율이 14.1%로 고령화가 점차 진행되는 추세임

☐ 입지상 잠재력과 발전의 한계

❍ 충청북도는 국토공간상으로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지역간 교류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서부의 산업지대와 국토 서남부에 입지한 산업

46) 인구는 외국인 포함, 단 세대수 및 세대당인구는 외국인 제외, 인구밀도=(내국인+외국인)/면적 · 세대당인구=내국인/세대수

및 교역지대와 연계축 형성이 가능한 지역임

- 수도권과 경부 및 호남축을 잇는 간선교통축의 중앙에 입지하여 도시 개발 및 교통·물류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수도권의 개발압력을 1차적으로 흡수·완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문제 해결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임

- 충청북도는 오송역을 오송지역 및 청주권 그리고 세종시의 관문역으로 활용하기 위한 역세권개발을 추진하고 있음(충청북도, 2011)

❍ 그러나 충북지역은 임야의 비중이 높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비중이 높고 인구의 고령화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시군 지역의 경우 정주인구수가 적고 임야가 많아 개발이 어려움(충청북도, 2011)
- 점차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 충북지역의 경제발전 모델을 만들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2. 경제활동 현황

□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16개 시도중 7위

❍ 2012년 기준 충북의 전체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39,502,491백만원으로 전국대비 3.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통계청, 2012)

❍ 충북의 1인당 지역총생산(GRDP) 규모는 2012년 기준 2,547만원/인 수준으로 전국평균 2,508만원/인 보다 높은 수준임

- 충북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7위에 해당됨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 2012년 기준 총사업체수는 112.650개이며 종사자수는 569,550명임[47)]

47)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2년 총사업체기초통계조사, http://kosis.kr/

- 2005년 이후부터의 데이터를 살펴보았을 때, 총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제조업부문 총사업체수는 9,813개(8.71%), 종사자수는 155,553명(27.31%)를 나타냄
- 충청북도내 종사자수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27.31%로 도소매업 12.71%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지역의 제조업이 지역의 중심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현재 경제활동인구는 792천명이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1.0%로 전국의 61.5%보다 다소 낮음
- 실업률의 경우 2.1%로 전국 3.1%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제조업의 발달로 일자리의 절대적 양은 충분해보이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볼 때에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 산업단지의 쇠퇴와 재생

❍ 2014년 2분기 현재 충청북도에는 총 102개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음
- 국가산업단지 2개, 일반산업단지 57개,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 농공단지 42개 등이며 입주기업은 1,527개사, 고용인원은 74천명임

❍ 2005년 청주산업단지 내에 입지해 있던 일부 대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충북지역의 산업단지 성장세가 크게 위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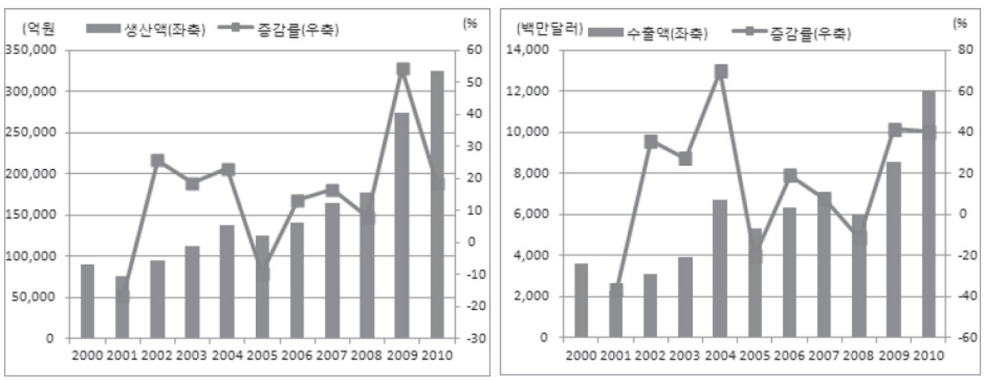
❍ 이후 청주일반사업단지와 오창과학학산업단지의 생산 및 수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충북발전연구원, 2011)

<표 15> 충북지역 산업단지 현황(2014년 2분기 기준)

구 분	입주업체(개)	고용(명)	생산(억원)	수출(백만불)
국가(2)	61	2,993	5,318	65
일반(57)	980	55,796	133,366	5,241
도시첨단(1)	76	450	466	-
농공(42)	410	14,992	35,558	1,010
합계(102)	1,527	74,231	174,708	6,316
전국	78,641	2,056,083	5,177,810	211,489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14), 2014년 2/4분기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보고서

<그림 17> 충북지역 산업단지의 연도별 생산 및 수출실적 추이



자료: 충북발전연구원(2011), "충북 산업발전 전략"

3. 정책환경 현황

1) 정부정책 지원 현황

□ 지역주도-중앙지원 형태로의 지역산업발전계획 방향 변화

❍ 2013년 7월 박근혜정부는 HOPE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지원-지역주도'의 지역사업 추진을 지역산업정책의 큰 방향으로 정하였음

– 정책개편 결과 2015년부터 3단계 지원체계에 따라 '경제협력권사업

(시·도연계),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시·도단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시·군·구 및 지역생활권 단위)'으로 추진될 예정임

- 정부는 지역산업발전계획을 통해 14개 시도별로 위 사업들을 통해 지원할 대표산업을 일괄선정하고, 실행전략을 수립하였음

❍ 지역주도의 상향식 지역산업발전 사업 추진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각 지자체별 역량에 따른 지역간 발전의 차이는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지역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중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수립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 지역내 자원의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의 우선순위와 개발전략 수립이 필요함

<그림 18> 지역산업지원사업의 개편 추이

<table>
<tr><td>공간범위</td><td>2012년</td><td>2013년</td><td>2014년</td><td>2015년</td></tr>
<tr><td rowspan="2">광역권/
시·도간</td><td>광역선도사업
(선도+연계협력)</td><td>광역선도사업
(선도+연계협력)</td><td>광역선도사업
(선도+연계협력)</td><td>광역선도사업
(종료)</td></tr>
<tr><td></td><td></td><td>경제협력권사업
(시범사업)</td><td>경제협력권사업
(본사업)</td></tr>
<tr><td>시·도</td><td>지역전략사업</td><td rowspan="2">新특화사업</td><td>新특화사업</td><td>지역주력사업</td></tr>
<tr><td>시·군·구</td><td>지역특화사업</td><td>지역연고사업
(시범사업)</td><td>지역연고사업
(본사업)</td></tr>
</table>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4)

☐ 중앙정부의 3차원 산업육성정책

❍ 중앙정부의 정책 개편 결과, '경제협력권사업'은 인위적 광역경제권을 탈피하여 산업생태계를 중심으로 경제협력권을 구성하게 됨

- 국가 R&D 중심과 유망상품 위주의 산업육성 정책을 탈피하고 지역 R&D 정체성에 맞춘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변화됨
- 집적도·특화도·성장성 등 중앙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내 기업수요와 산업생태계에 기반한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협력권을 도출

하였고, 권역당 1개 협력산업을 선정하였음

❍ 특히 충북지역 주관으로 제주지역과 협력하여 한국형 화장품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목표로 경제협력권사업을 추진하게 됨

– 충남이 주관으로 하는 이차전지 프로젝트와 강원도 주관 의료기기산업 프로젝트에 충북지역이 참여하여 경제협력권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은 시도별로 집적도·특화도·성장성이 높아 시·도를 대표할 수 있는 중추산업을 기준으로 총 63개 주력산업 선정

– 주력산업 선정결과 충북지역은 반도체, 바이오의약,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등이 선정되었음

☐ 중앙정부 지원사업 내 충청북도의 발전방향

❍ 경제협력권사업과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선정결과를 보면 충북지역은 바이오의약, 화장품 등이 산업생태계의 중심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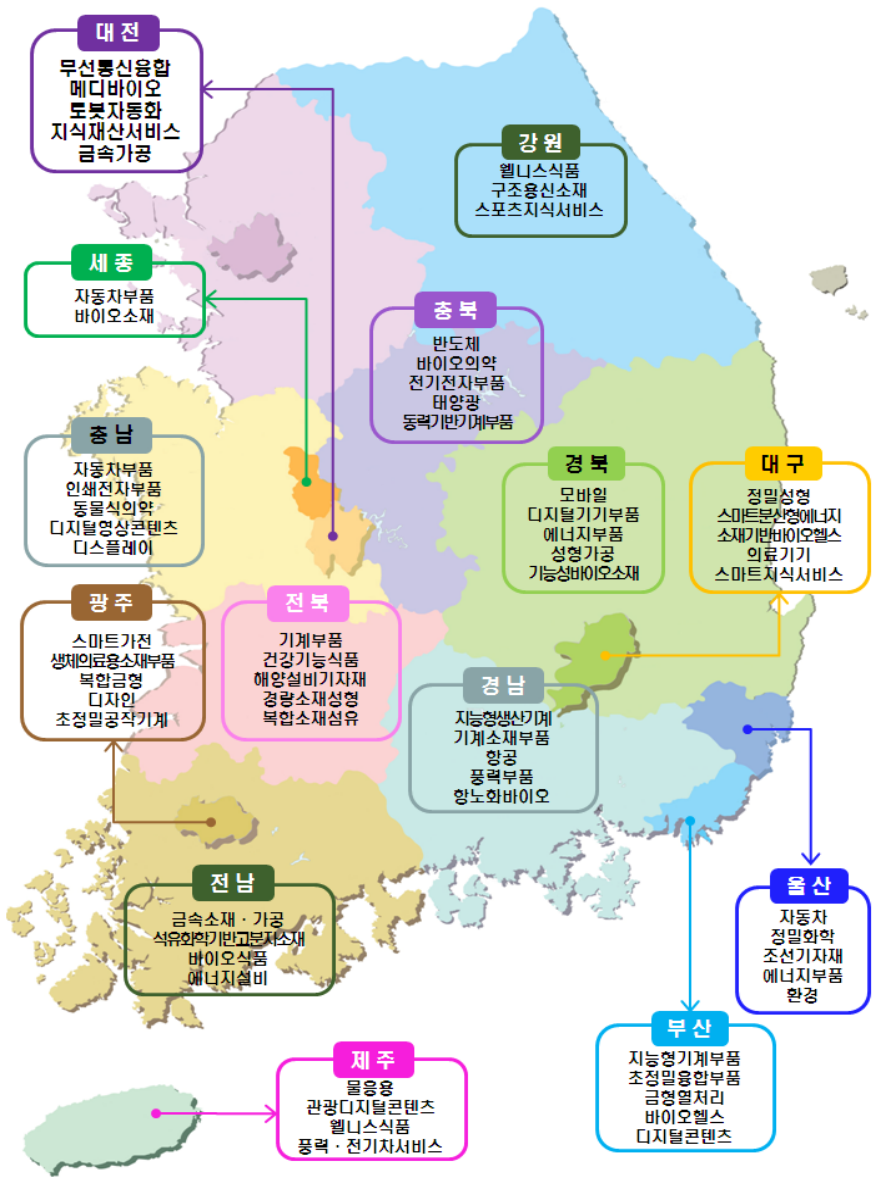
– 이와 더불어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의 산업발전 역시 바이오·의약·화장품 산업군과 연계한다면 충북지역 융합산업생태계의 기반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표 16> 경제협력권사업의 프로젝트 선정결과

프로젝트	주관/참여 시도	프로젝트		주관/참여 시도
기계부품	충남, 세종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이차전지	충남, 「충북」	의료기기		강원, 「충북」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조선해양 플랜트	세부1	경남, 전남
			세부2	부산, 울산
화장품	「충북」, 제주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광·전자융합	광주, 대전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차량부품		부산, 경남
친환경자동차부품	전북, 광주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휴양형MICARE		제주, 강원

주 : 밑줄은 주관시도(관계 시도간 합의안)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4)

<그림 19> 시·도별 주력산업의 선정 결과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4)

☐ 충북지역 산업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할 전시관 결여

❍ 충북지역의 산업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시설로서 전시관 인프라가 충북지역에 없음

- 전시관의 대체재인 컨벤션도 존재하지 않음
- 전국 주요 컨벤션 입지를 조사한 결과 컨벤션 기능이 부재한 광역자치단체로는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3곳임

❍ 충청북도에 의료·바이오·화장품을 비롯하여 새로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의 성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회의·행사·박람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이 필수적임

- 전시관산업은 기업서비스지원사업으로 최근 성장추세에 있어 지역기업의 기업활동지원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산업 일자리를 제공함
- 전시관산업의 육성을 통해 젊은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음
- 따라서 충청북도 역시 회의·행사·박람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음

<표 17> 전국 주요 컨벤션센터 현황

전시장명		개관년도	전시장	운영기관
서울	COEX(서울)	’88. 9월	47,543㎡	COEX
	SETEC(서울)	’99. 5월	8,787㎡	KOTRA
	aT Center(서울)	’02.11월	9,832㎡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인천	송도컨벤시아(인천)	’08. 11월	12,436㎡ (증축예정)	인천관광공사
부산	BEXCO(부산)	’01. 9월	33,349㎡	(주)부산전시 컨벤션센터
대구	EXCO(대구)	’01. 4월	29,510㎡	(주)대구전시 컨벤션센터
대전	DCC(대전)	’08. 4월	7,382㎡	대전컨벤션뷰로
	KOTREX(대전)	’95. 5월	4,200㎡ (증축예정)	KOTRA
경기	KINTEX(고양)	’05. 4월	121,786㎡	KINTEX㈜
경북	구미코(GUMICO)	’10. 10월	3,402㎡	구미시
경남	CECO(창원)	’05. 9월	10,611㎡ (증축예정)	경남도/창원시
전남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05. 9월	11,301㎡ (증축예정)	(지방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제주	ICC JEJU(제주)	’03. 5월	8,877㎡	(주)제주국제 컨벤션센터

2) 충청북도의 자체 비전

□ 생명·첨단산업 거점, 녹색성장 중심지역으로 발전

❍ 「충청북도 종합계획 2011-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발전방향은 크게 네가지임

– 충청북도 종합계획의 발전방향에서는 지역의 주력산업을 의료 및 바이오 산업으로 선정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계획

–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부권 국제교류기반 정비와 광역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계획 중임

❍ 지역발전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간구조 개편방안으로 내륙발전축 구상은 균형발전축, BIO 웰빙발전축, 동서연계발전축으로 구성됨(충청북도, 2011)

- 균형발전축은 충북도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며 내륙관광휴양지대의 발전을 위한 관광여가와 관련되어 있음
- BIO웰빙발전축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세종시와 대전광역시, 청주시의 근교농업 배후지역의 개발수요를 연계 육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 동서연계발전축은 내륙삼각발전축의 기능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전략이 서측의 해양지향형 개발축에서 동쪽의 내륙지향형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것으로 충북의 신성장동력발전축을 연계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함

<표 18>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의 발전방향 주요내용

발전방향	주요내용
개방적 공간구조 개편과 인프라 확충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축 설정 및 지역발전거점 육성 -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공항중심형 충북경제자유구역」조성 - 중부권 국제교류기반 정비와 광역 인프라 확충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내륙물류거점 확보
글로벌 의료산업 및 BT산업의 메카 육성	-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동북아 생명기술산업(BT)의 메카 조성 - 정보통신기술(IT)산업의 거점 조성 - 아시아 태양광산업 거점지역 육성 -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신소재를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바이오농업 기반 구축
중부내륙 휴양레저와 역사·문화관광의 거점 육성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적 관광거점 조성 - 특색 있고 수준 높은 지역문화 창조 - 백두대간 생태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녹색관광 기반조성
지역재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안정 도모 - 평생복지체계와 지역밀착형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 품격 있는 문화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확충

자료: 충청북도(2011),「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

❑ 충청북도 권역별 발전의 중심 오송바이오밸리 구축 계획

❍ 권역별 발전을 견인할 주요 프로젝트에는 '오송바이오밸리', '오송역세권 개발', 오송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근교형 바이오웰빙지구' 등을 제시하고 있음(충청북도, 2011)

- 첨단의료복합단지+오송생명과학단지+KTX오송역세권을 중심으로 신성장거점 오송바이오밸리 구축을 계획함
- 오송역을 여객수송중심의 기능은 물론 새로운 발전축으로 설정하여 재화와 서비스, 지식과 가치, 문화컨텐츠가 이합집산하는 국토교환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능간 연계도모 및 공간구조개편을 계획함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6대 국책연구기관의 바이오임상 테스트베드 기능을 하는 집적단지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오송의료산업과 연계한 남부권 의료기기 산업활성화와 남부권에 의료관광단지 조성을 계획함

<그림 20> 충청북도 발전계획도(2008~2020)

자료: 충청북도(2011),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

제2절 오송 주변지역 여건 분석

1. 일반 현황

□ 통합 청주시의 출범과 인구의 증가추세

❍ 청주·청원은 2012년 6월 통합이 확정되어 2014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로 출범하였음[48)]

- 통합 청주시는 서울 동남방 128㎞지점에 위치한 중부권의 내륙도시로 반경 40㎞내에 대전, 천안, 괴산, 보은 등이 인접해 있음
- 통합으로 청주시의 면적은 940.28㎢가 되어 충청북도의 12.7%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행정구역은 4개구 30개동, 3개읍, 10개면이 되었음

❍ 2013년 기준 통합전 인구는 청주시와 청원군을 합하여 837,617명으로 충북지역인구의 52.3%를 차지하고 있음

- 2013년 청주시의 인구증가율은 전년대비 0.96%로 전국평균 0.47%에 비해 높은 인구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2년 기준 청주시의 순인구이동은 60명, 청원군은 2,220명으로 통합청주시의 인구는 증가추세이며 특히 옛 청원군 지역으로의 인구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통계청, 2012)

□ 전국 1시간대 접근 가능한 내륙교통 중심지

❍ 오송역이 2010년 충북선과 KTX의 환승역사로 전환됨에 따라 전국 1시간대 접근이 용이한 국토의 중심으로 기능하게 되었음

- KTX 이용시 서울-오송간 30분, 인천국제공항-서울-오송 구간은 90분 소요됨
- 2013년 4월부터 세종시 BRT노선이 오송역까지 운행되어 세종시와 오송지역을 연결하여 인접 세종시, 대전시, 충남지역과의 교통 연계가

48) 청주시청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매우 우수함

– 오송역은 인근 정부세종청사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오송역 이외에도 경부선철도 조치원역 인접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청주 나들목과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나들목이 위치하고 있음

<그림 21> 오송지역의 지리적 접근성

자료: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http://www.kicoxosong.co.kr/

☐ 내륙국토와 세계를 이어주는 중부권 유일의 청주국제공항 위치

❍ 1997년 4월 개항한 청주국제공항은 김포공항으로부터 165㎞, 인천공항에서 250㎞, 군산공항에서 120㎞ 떨어진 국토의 내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국토교통부, 2014)

- 총 부지면적은 15,135㎡이며, 2개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음

❍ 연간 여객처리능력은 국내선 189만명/년, 국제선 126만명/년이며, 연간 화물터미널 처리능력은 국내선 3.2만톤/년, 국제선 0.5만톤/년임

- 국내선은 제주 노선이 운항중이며, 국제선은 중국(연길, 항저우, 베이징, 심양), 태국(방콕) 노선 운항중임
- 청주국제공항 화물터미널은 중부권 항공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목적으로 2003년 10월 29일 준공하였으며, 항공화물취급업체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있음

❍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의 거리는 21㎞(자동차로 10분 소요)로 항공교통과 내륙교통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이 기대됨

❍ 내륙의 중심에 위치한 충북지역내에서도 오송지역은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 그리고 주요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지역 발전을 위한 최적의 교통여건 기반을 고루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청주국제공항이 아직까지 국제노선의 수가 다양하지 못하고 이용객이 많지 않아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이 약한 상황임
- 오송역 역시 주변지역의 편의시설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륙교통의 중심역으로의 기능이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음
-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송지역이 가진 교통인프라 이용률의 향상과 동시에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시급함

<그림 22> 청주국제공항

자료: 청주국제공항, www.airport.co.kr/mbs/cheongju

2. 경제활동 현황

☐ 충청북도의 중심지 통합청주시

❍ 2011년 기준 청주시의 지역내총생산액은 11,9158억원(충북도내의 30.7%), 청원군은 69,511억원(충북도내의 17.9%)를 차지하였음[49)]

❍ 통계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청주시와 청원군의 자료를 통합하여 보면 통합 청주시의 총사업체는 55,146개 총 종사자수 290,560명임(2012년 총사업체기초조사자료 기준)

- 통합 청주시의 사업체와 종사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각각 충북의 49%, 51%를 구성하고 있어 충청북도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재확인 할 수 있음
- 사업체수 기준 업종비중은 도소매업 14,605개(26.48%), 숙박음식점업 10,706개(19.41%),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6,597개(11.96%), 운수업 5,199개(9.43%), 제조업 4,156개(7.54%), 교육서비스업 3,074개(5.57%)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49) 청주시청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 종사자수 기준 업종비중은 제조업 68,671명(23,63%)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소매업 39,893명(13.73%), 숙박음식점업 29,129명(10.03%), 교육서비스업 25,494명(8.77%),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4,366명(4.94%), 운수업 12,589명(4.33%)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청주시의 총 사업체수는 45,599개, 종사자수 216,648명이며 도소매업이 주요업종으로 나타남

- 사업체수 기준 주요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업 12,457개(27.32%), 숙박음식점업 8,762개(19.2%),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649개(12.4%)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제조업 2,406개(5.28%)은 다소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종사자수 기준으로 주요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업 33,844명(15.62%), 제조업 32,013명(14.78%)으로 나타나 제조업이 지역내 고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청원군의 총사업체수는 9,547개, 종사자수 73,912명이며 청주시와 달리 종사자수 기준 주요업종이 제조업으로 나타남

- 사업체수 기준 주요 업종별 비중은 도소매업 2,148개(22.50%), 숙박음식점업 10,706개(19.41%), 제조업 1,750개(18.33%)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종사자수 기준 주요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 36,658명(16.92%)으로 나타나 제조업이 지역내 고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소매업 6,049명(2.79%), 숙박 및 음식점업 5,263명(2.43%)의 분포를 나타냄

□ 충청북도, 청주시 산업발전의 중심지 오송

❍ 통합청주시에는 총 국가산업단지1개, 일반산업단지 10개, 도시첨단산업단지 2개, 농공단지 2개가 지정되어 있음

- 국가산업단지는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있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바

이오분야에 특화되어 있음

-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4개 산업단지가 가동중이며, 오창제2산업단지는 조성 중임
- 일반산업단지 5개는 개발예정 혹은 개발진행 중임

❍ 청주시 지역 중에서도 오송지역은 KTX오송역 인근지역에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오송제2생명과학단지가 개발 중에 있음

-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는 보건의료행정타운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함께 개발하여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중심지로 육성 중임

❍ 오송지역과 인접한 오창지역에는 오창과학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청주지역의 주요산업단지의 집적지라 할 수 있음

- 오창과학일반산업단지는 청주국제공항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절대적 위치상으로도 오송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음
- 전기전자업종이 주력업종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비해 2배 규모의 면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청주와 충청북도지역의 주요산업단지로 기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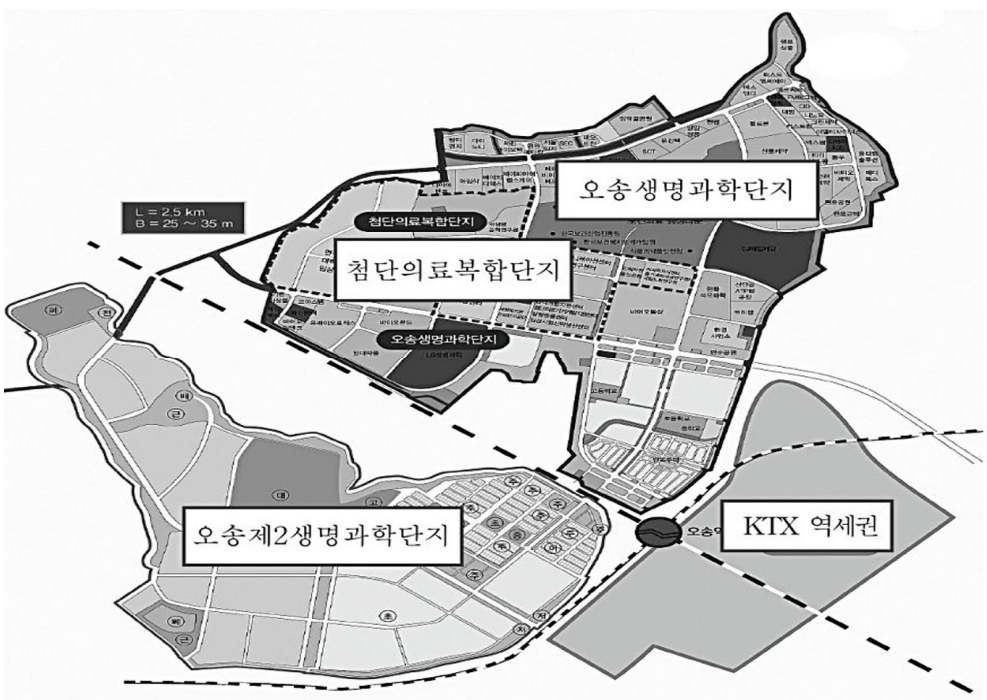
<표 19> 청주시 주요산업단지 현황

구분	산업단지	지정면적 (천㎡)	가동업체수 (개)	주요업종
국가 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	4,628	38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반 산업단지	청주	4,099	350	전업종
	청주테크노폴리스	1,528	미개발	전지, 전자, 정보 등
	KGB복합	306	미개발	KGB택배
	강내	185	미개발	동부특수강
	성재	549	미개발	신물질, 신소재, 전자·정보·통신
	오송제2생명과학	3,284	미개발	식품, 의약품, IT등
	오창과학	9,450	153	전기전자, 고도기술
	오창제2	1,390	조성중	전기,전자,통신

구분	산업단지	지정면적 (천㎡)	가동업체수 (개)	주요업종
	옥산	1,364	6	신소재, 전자, 정보
	현도	719	3	음식료품, 종이제품
도시첨단산업단지	청주도시첨단문화	51	76	에듀테인먼트
농공단지	내수	105	3	목재종이, 섬유의복
	현도	68	1	기타운송장비제조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14), 2014 산업입지요람, 한국산업단지공단(2014), 2014년 2/4분기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보고서

<그림 23> 오송지역 주요 산업단지 위치 현황



자료: 충청북도(2012)

□ 오송바이오벨리 구상의 중심 오송생명과학단지

❍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로 기업체, 대학, 연구소, 국책기관이 집적된 바이오·생명공학클러스터임
- 오송역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내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보건의료행정타운을 포함하고 있음
- 보건의료 관련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인허가, 제조, 판매의 전과정을 담당하고 있음

❍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총 4,619천㎡ 규모의 바이오생명공학클러스터로 조성되었으며, 제약 60.0%, 의료기기 33.3%, 건강기능식품 6.7% 등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50)]
- 총 60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많은 기업들이 연구소를 동반함으로써 연구에서부터 생산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2014년 2/4분기 현재 가동업체수는 38개이며 고용인원 규모는 총 2,241명임

❍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정부가 2009년 8월 의료분야의 핵심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13만㎡ 규모로 조성하였음
-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함께 국가차원의 의료산업 전략육성 허브 산업단지로 조성
- 사업기간은 2009년~2038년(30년간)으로 2011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향후 사업진행에 따라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오송첨단의료 복합단지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실험동물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주요기능은 공동연구 추진, 산학연 연계, 전문인력 양성, 실험환경 제공 등으로 이러한 기반시설은 향후 산업단지내 기

50)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osong.mw.go.kr)

업입주의 주요입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신약후보물질 개발 역량강화 및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임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에서는 국내의 BT, IT기술을 융합한 의료기기 개발 연구 및 산학연 가교역할 수행하는 곳이 주요목표임
-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는 임상시험용 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여 국내바이오신약 개발 활성화 기반 마련 및 글로벌 GMP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실험동물센터에서는 신약 및 의료기기개발지원을 위한 최적의 동물실험 환경을 제공함

❍ 또한 보건복지부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산학연협력클러스터로 구축하기 위해 보건의료 필수 연구지원시설을 오송생명과학단지내에 설치하였음

- 주요 시설로는 국립인체자원중앙은행, 국립의과학지식센터, 국립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등이 있음
- 국립인체자원중앙은행은 국가단위 인체자원(혈액시료, 암 및 질환조직 등) 의 총괄 관리기능을 수행하며,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국가 의과학지식의 체계적 관리, 신종 변종 병원체 진단 및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는 약 4,200㎡ 규모로 2015년까지 건립 예정이며 줄기세포주의 체계적 등록관리 및 기초연구 결과의 임상적용 지원을 담당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의 주도하에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6개 국책기관의 행정타운을 구성하였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6개 국책기관이 소재하고 있음
- 약 2,300여명이 근무 중이며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들의 각종 인허가

임상실험, 질병연구, 인력양성, 보건산업육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표 20>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주요기관 현황

기관명	주요업무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및 정책개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식품·의약품 등의 심사 - 위해평가 시험분석 - 시험방법·허가심사법 개발 및 실험동물 관리
질병관리본부	- 급성·만성 감염성 질환 및 비전, 염성질환 관리 - 인간유전체 실용화 사업 - 질병 퇴치·예방, 신종 전염병 예방·대응, 검역관리
국립보건연구원	- 방역, 간염병 발생정보 수집·분석 - 질병감시, 진단법 및 백신개발 - 유전질환 발병 규명 및 치료법, 생물정보학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산업 정보의 개발·관리 및 보건산업의 육성 -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 보건산업 육성·지원, 정책연구, 산업체 지원 등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보건복지 공무원 및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 서비스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개발·보급 및 관리 - 보건복지 관련 교육훈련 개발 및 교육

자료: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http://osong.mw.go.kr

❍ 오송바이오벨리는 생산기능 뿐만 아니라 연구기능과 연구·생산 지원기능을 통합적으로 같은 공간안에 기능하게 함으로써 성장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특히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성장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기업의 입주와 생명과학 관련 주요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위치하고 있음

– 그리고 이러한 체계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지역으로 이전해올 것이 기대되며, 생명과학 분야의 많은 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 기대됨

❍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의료·바이오 기업 및 연구인력 집중현상은 오송지역을 바이오생명공학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 있음

□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 중

❍ 총 328만㎡ 규모로 제1오송생명과학단지와 인접하여 개발중인 일반산업단지임

– 20018년 완공예정이며 산업시설, 주거시설, 상업 및 공공시설 등이 함께 개발 중임

❍ 유치대상업종은 첨단업종(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등), IT(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장비, 컴퓨터프로그래밍 등), BT(식료품, 음료, 화학물질, 의료용 물질 및 의료품 등)으로 구성됨

❍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는 일반산업단지로 기존의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개발 및 관리주체는 다르지만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인접하여 연계발전이 기대되고 있음

– 오송생명과학단지가 가지고 있는 연구와 생산지원기능은 개발진행중인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로의 기업입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는 추후 의료·바이오분야의 중심산업단지로서 하나의 산업집적지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됨

❍ 두 산업단지간의 교류·협력체계 구축은 오송지역을 바이오산업의 핵심지역으로 성장시키는데 있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두 개의 산업단지간 연합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필수불가결한 문제이며,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도 중점적으로 지원관리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됨

▢ 오창과학산업단지

❍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권 일원의 산업용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음

- 청주시의 청원구 오창읍과 흥덕구 옥산면에 걸쳐 있으며, 총면적은 945만㎡이고 주거·업무·생산·연구 기능을 고루 갖추고 있음
- 청주공항에서 4㎞, 청주역에서 10㎞ 거리에 있으며, 단지 내에 중부고속도로의 오창나들목(IC)이 위치해 있음
- 2014년 2/4분기 현재 153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고용규모는 15,977명임(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 주요업종으로는 전기전자 및 석유화학이며 LG화학과 다수의 외국인기업체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음(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 업종구성은 전기·전자, 석유화학, 음식료, 기계, 비금속, 운송장비, 비제조, 섬유·의복 순임
- 외국인 기업체로는 스템코, JSR마이크로코리아, 린텍코리아 등이 있음

▢ 차세대 의료·바이오 융합기술의 중심지로의 발전가능성

❍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의료·바이오기술과 오창과학단지의 전기전자 관련 기술을 융합한다면 새로운 의료기기와 바이오 관련 기술의 융합개발이 가속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의료·바이오기술과 전기전자기술의 융합은 새로운 의료기기 및 바이오칩 등의 개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음
- 이러한 융합기술의 개발은 충북지역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부분임
- 오송과 주변지역이 가진 이러한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 마련과 지원프로그램 구축을 지역발전의 중요 이슈로 제시할 수 있음

❍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단지의 이종업종간 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지원시설과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함
- 산업단지 기업간 구성원간 네트워크 형성과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한 모임의 공간 제공은 기술융합을 위한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이종업종간 교류를 위해서는 국내외의 외부전문가들과의 공동세미나 개최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 교환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오송과 오창지역을 아우르면서 교통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정하여 회의·세미나·학술대회·기업모임 개최가 가능한 공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음

❍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의료·바이오 기업 및 연구인력 집중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송지역의 업무지원 기능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계층이 필요로 하는 문화·여가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과 프로그램 제공 역시 중요함

3. 오송지역 내 박람회개최 현황

□ 충청북도 지역의 박람회 개최 수요와 산업기반 성장 기대

❍ 충청북도 지역에는 전문 컨벤션 인프라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각종 국제박람회 및 국제 세미나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 특히 오송지역에서 개최된 2014 국제 바이오산업 엑스포와 2013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는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로 자리잡았음
- 국제 바이오산업 엑스포는 2002년에 이어 2014년에 다시 한번 개최되어 오송지역의 확고한 주요 국제 행사로 자리잡았음
-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는 청주지역이 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새로운 산업기반을 형성하였음을 증명하였음
- 특히 경제협력권사업에서 충북지역이 화장품산업육성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선정되어 앞으로도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지속가능성과 관련 국내외 행사 개최의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임

1)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 개최 목적

❍ 2013년도에 개최된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는 충청북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주시, 청원군의 주최로 2013년 5월 24일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내에서 개최되었음

- 오송을 기능성 스킨케어 화장품의 연구·생산·판매 및 뷰티산업 교육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하는 목적으로 개최
- 박람회 주요내용으로는 주제전시, 산업교역, 경연대회, 학술회의, 체험이벤트 등임

❍ 오송지역은 화장품, 뷰티관련 인프라가 풍부해 신제품, 원료 미용기기의 연구개발, 심사 및 인허가의 처리가 신속한 지역으로 뷰티관련 산업의 요충지로 발전하고 있음

- 충청권에는 LG생활건강 등 대형화장품업체가 집중 입지하고 있어 2009년도 기준 국내 생산액의 45%를 점유하고 있음(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2013)

□ 사업의 성과

❍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는 외국인 관람객 83,363명이 방문하였으며, 외국인 관람객을 포함 24일간 총 83,363명이 방문하였음(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2013)

- 외국인 관람객은 주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단체로 방문하였으며, 주말을 이용해 찾아온 한국거주 외국인들도 다수를 차지하였음
- 타 뷰티박람회가 2~3일간 개최되는 것과 달리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는 24일간 개최하여 참여하는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표 21> 2013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관람객 집계결과

(단위: 명)

총계	일반	외국인	단체	산업관	경연대회		학술 회의	기타
					관계자	가족		
1,187,365	837,367	83,363	91,148	57,606	37,760	61,814	4,422	13,885

*1일평균 49,474명 관람, 최고(5.5일 어린이날) 84,668명, 최소(5.21) 28,969명

자료: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2013)

❍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송지역의 기능성 스킨케어 화장품 특화를 위한 바이오·메디컬 인프라를 집중 홍보하여 총 373개 기업의 유치 참여 성과를 거두었음(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2013)

-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의 국내 주요기업의 참여로 인지도 상승
- 프랑스, 캐나다 독일 등 총 17개국 47개 해외기업이 참여
- 해외바이어는 총 41개국 2,124명의 바이어가 화장품산업관과 뷰티산업관을 방문하였음

<그림 24>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뷰티테라피 기능경진대회

자료: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http://www.osongbeautyexpo.kr/

<그림 25>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화장품산업관

자료: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http://www.osongbeautyexpo.kr/

❍ 기업과 바이어들의 상담을 위한 비즈니스라운지(화장품산업관, 뷰티산업관)에는 373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계약으로 이어진 상담 건은 국내 바이어 4건에 1억 6천만원, 해외 바이어 840건 5,723만달러 규모임

– 직접 관람객을 대상으로 할인판매를 실시한 뷰티마켓관은 14만건, 21억7천만원의 매출 실적을 거두어 참여기업의 대대적 호응을 얻어냄

❍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로 오송과 주변지역의 화장품산업의 발전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음

–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향후 지속적인 화장품박람회 개최계획에 기반을 마련하였음

– 또한 박람회의 성공으로 국내 화장품관련 기업들이 오송지역에 대한 기업입지의 매력도를 향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여 지속적인 관련 기업체의 오송지역 입주가 기대됨

☐ 향후 발전방향

❍ 화장품·뷰티박람회 개최에 따라 오송지역에 대한 화장품업체의 관심을 기업입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관련기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마련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지속적인 국제박람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는 컨벤션 기능을 포함한 인프라시설의 개발이 요구됨
- 화장품관련 기업체의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교류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체·연구소·생산시설 근무자들의 여가문화서비스 제공 등이 기업 입지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2)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 개요

❍ 국내 최대 바이오산업 엑스포로, 충청북도, 산업통상자원부, 청주시 주최로 2014.9.26.~10.12일까지 17일간 오송생명과학단지내에서 개최되었음

- 2002년 바이오엑스포 개최이후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서 충북 오송의 브랜드 위상이 강화되어 2014년에 재개최되었고 충청북도의 최대의 지속적인 주요 행사로 자리잡게 되었음
- KTX오송역 인근 오송생명과학단지내에서 소요예산 232억 규모로 전시, 컨벤션, 교역, 이벤트, 교육·체험, 관광 등의 내용으로 개최되었음

□ 사업의 성과

❍ 박람회 관람객 방문 규모를 살펴보면 9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17일간 961,427명(외국인 41,735명 포함)이 방문했으며, 기업체 303개사(국내 219, 해외 84), 국내외 바이어 4,106명이 참석하였음

- 산업관에 바이어뿐만 아니라 많은 관람객이 방문함으로써 부스참가기업의 만족도 비율이 높아 엑스포 전 기간 이탈기업이 없었음
- 엑스포 기간중 바이어 4,106명(국내 2,730, 해외 1,376)과 수출상담을 하여 국내 7건 1.1억원, 해외 198건 2,173만달러의 현장계약체결

<그림 26> 오송바이오엑스포 행사장 전경

자료: 충청북도 내부자료

❍ 국제·국내 학술회의 및 비즈니스포럼, 비즈니스교류 개최를 통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바이오산업의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음

- 국제 학술회의에는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아론 치카노버 교수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 20여명이 참석하였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국제제약공학회, 한국바이오칩학회, 한국제약협회 등 바이오관련 전문기관 관계자 4,640명이 참석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상용화 방안을 논의하여 바이오산업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함

<표 22> 2014바이오엑스포 학술회의 및 비즈니스네트워킹 참여 결과

(단위: 명)

총 계			학술회의		비즈니스네트워킹									
					비즈니스 포럼		제도·정책 설명회		비즈니스 교류					
									IR & 미팅		컨설팅		파트너링	
계	내	외	내	외	내	외	내	외	내	외	내	외	내	외
4640	4531	109	3590	76	491	3	160	0	222	0	26	2	42	28

※ 참여자수 기준: 특별행사(충북 C&V센터 컨벤션회장 활용 개최행사) 제외
자료: 충청북도 내부자료

<그림 27> 한국바이오칩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 충청북도 내부자료

❍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는 바이오산업의 전문성과 일반인의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엑스포장 구성을 B2C 공간과 B2B 공간으로 구분함

- B2C 공간은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주제관인 바이오미래관과 주제영상관, 체험관, 주공연장 등으로 구성하여 바이오분야에 생소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바이오산업의 현주소와 미래전망을 제시
- B2B 공간은 기업 및 컨벤션 등 바이오산업 분야 관계자들간의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바이오산업관 및 화장품산업관, 비즈니스룸, 컨벤션센터, 바이오마켓 등으로 구성
- 전문가를 위한 공간과 일반인을 위한 공간을 구분함으로써 일반인들의 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취시킴

☐ 향후 발전방향

❍ 2014바이오엑스포의 경우 임시시설물 설치를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설치와 해체에 많은 비용이 중복 발생되었으며, 임시시설물이 가지는 구조

적 한계점이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제기됨

- 2014바이오엑스포에서는 200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바닥을 콘크리트바닥으로 개선하고 높이를 조절하여 바닥소음, 냄새, 결로현상, 우수침입방지 등을 조치하였음
- 하지만 파빌리온의 구조상 냉방효율이 떨어지는 전시관이 있었으며, 파빌리온 내부의 칸막이 등 복잡한 내부구조로 냉기순환이 억제되어 내부기온이 상승하는 문제점 발생

❍ 2014바이오엑스포는 엑스포장 조성에 있어서 2013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시설물 인수하여 사용하여 엑스포개최 비용을 절감하고자 노력하였음

- 그러나 행사에 이용된 건축시설(전시관, 편의시설, 산업관, 운영본부 등)은 TFS텐트 혹은 ALU텐트를 이용함으로써 설치와 해체에 따른 비용부담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임시구조물이 가지는 물리적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청북지역의 주요 세계행사를 경제적으로 치르기 위한 상시 컨벤션 인프라의 건설이 필요한 상황임

<그림 28>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행사장 전경

자료: 충청북도 내부자료

제4장
오송전시관 건립의 기본구상

제1절 필요성 및 잠재력 진단

제2절 기본개념

제3절 운영프로그램

제4절 건립계획

제4장 오송전시관 건립의 기본구상

제1절 필요성 및 잠재력 진단

1. 필요성

□ 국제 박람회의 안정적 개최를 위한 상설건물 필요

❍ 지금까지 충북 오송에서는 바이오엑스포와 오송화장품뷰티 박람회를 개최해 왔음

– 바이오엑스포가 2002년에 이어 2014년 개최되었으며, 2013년에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가 개최되기 시작

❍ 위 두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지속적인 박람회 개최를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임시시설물이 아닌 체계적으로 기업 및 관련 연구소의 전시홍보기능을 갖춘 인프라의 공급이 필요함

– 2012년 오송 화장품 뷰티박람회는 외국인 포함 24일간 총 83,363명이 방문

– 2014년 오송 바이오산업엑스포는 17일간 외국인 포함 총 961,247명이 방문

❍ 임시시설물 활용에 따른 박람회 개최의 어려움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해마다 동일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

– 매해 임시시설물 대여비용만 17억-20억 소요되고 있음

❍ 바이오엑스포와 뷰티세계박람회 이외에도 청원생명축제, 충북예술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등이 상시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전시관과 회의관 기능을 하는 상설건물이 필요

□ 핵심 기업지원인프라 중 하나인 기업전시관이 충북에 전무

❍ 기업의 홍보, 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인프라인 기업전시관이 충청북도에 전무한 실정

❍ 또한, 전시관이 없을 때 컨벤션 센터의 일부 공간을 임대해서 전시를 할 수 있으나, 충북에는 컨벤션센터도 부재

– 전국 광역지자체 중 컨벤션이 없는 지역은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3곳임

❍ 현재, 충청북도 내에서 충주시가 "강소컨벤션센터"라는 명칭으로 컨벤션센터 도입을 계획 중이나, 아직까지 국비 등 재원 확보 문제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충주시는 세계무술공원관광지내에 컨벤션센터를 도입하여 지역의 관광경쟁력 확보 및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 사업계획은 2014년~2018년으로 계획하고 있음

□ 중국 투자자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겨냥한 전시관 건립 필요

❍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에서 신규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의 하나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관광 및 MICE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음(충청북도, 2011)

❍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 투자자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 홍보 부스가 빈번하게 설치,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선순환의 구심점 마련 필요

❍ 충북지역 그리고 청주지역 내에서도 오송지역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 연구개발지원기관이 집중되어 있어 전시관 시설물의 높은 활용이 예상됨

- 주변 산업단지 입주업체 및 공공기관들의 지속적인 학술대회·세미나·회의 등의 수요가 예상됨

❍ 바이오분야에 특화된 산업단지와 연구소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국가계획을 통해서도 오송지역을 중심으로 의료·바이오산업 특화발전을 계획중임

- 오송지역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보건복지부 산하 6대 국책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제2오송산업단지가 개발중임
- 오창지역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위치하고 있어 의료·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이 다져진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이들 고급전문인력을 중심으로한 국내외 학술교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설 컨벤션 기능 인프라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잠재력

□ 충청북도의 전국 및 해외 접근성 향상

❍ KTX 오송역, 청주국제공항 등의 존재로 인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의 교통 접근성이 향상

-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 간 거리가 21㎞로 국제 전시회, 엑스포 개최에 용이함

❍ 오송역이 충북선과 KTX의 환승역사로 전환되어 전국 1시간대 접근이 가능

- 현재, 인천국제공항-서울-오송 구간이 90분 소요
- 세종시 BRT노선이 오송역까지 운행, 세종-대전-충남 간 교통연계도 매우 우수
- 또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나들목에 오송이 인접하고 있음

□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오송행정타운의 전시관 수요 발생

❍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6개 국책기관의 행정타운이 건립되어 주요기관들이 이전하였음

- 세계수준의 바이오전문 산업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전문가 및 업체들간의 교류 연계가 활발히 일어나야 함
- 이러한 바이오 특화 연계를 뒷받침 하기 위한 세미나, 학술대회 등의 기반시설이 오송지역에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등 대규모 공공시설의 이전은 전시관 및 행사 수요를 증가시킴

❍ 또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향후 충청북도와의 연계 하에 보건복지 인력 프로그램이나 취업박람회를 열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행사 수요가 발생할 것임

□ 오송생명과학단지, 한방산업 등의 B2B 행사 수요 증가

❍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기업들의 투자 및 홍보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생산자와 바이어 간 B2B 공간이 필요

❍ 또한,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뿐만 아니라 연구소, 잠재 창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회의·전시 인프라의 수요가 존재

❍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아모레퍼시픽 등 일부 대기업만 독자적인 판로를 갖고 있으며, 나머지 대다수 기업은 OEM방식으로 자신의 제품을 판매

❍ 또한 충북 제천 등 한방산업이나 허브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들의 판매루트 확보를 위한 전시관 수요 발생 예상

□ 세종시 정부기관 주요행사 수요의 흡수

❍ 오송역이 세종시와 수도권을 이어주는 주요 관문으로 기능함에 따라 세종시 정부기관 관련 주요 행사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세종시의 경우 충남, 대전권에 포함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통 접근성은 KTX오송역이 가장 편리함

❍ 교통접근성이 뛰어난 오송역 인근에 회의·컨벤션 기능 인프라를 구축하여 세종시의 중앙정부의 주요행사를 오송지역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2절 기본개념

1. 건립 목적

□ 오송전시관 건립을 통한 충청권 내 교류Hub 역할 담당

❍ 세종시와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존재하지 않는 전시시설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여러 경제주체들 간 상호작용을 촉진

❍ 오송 지역은 충청권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관점에서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오송전시관의 건립을 통해 충청북도가 전국적인 교류거점으로 도약

- KTX 등을 통해서 오송지역이 전국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

□ 충청북도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원 촉진

❍ 충청북도 경제는 전통적으로 제1차산업과 저기술형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어 경제성장률이 낮은 실정임

❍ 그러나 최근에 오송첨단생명복합단지, 생명과학단지, 제천 중심의 한방산업 등의 발전으로 인하여 친환경 화장품과 바이오상품이 개발, 판매되고 있음

❍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차원에서 기업들과 투자자들 간,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 간의 상호 네트워킹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오송전시관을 통해 충북 바이오의 이미지 강화

❍ 충청북도에 대한 이미지는 충주호 등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이 강한 편임

❍ 충청북도가 기업투자의 유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북도의 역동적인 경제이미지, 과학기술이미지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오송전시관 내 체험, 교육시설 등의 구비를 통하여 새로운 과학기술,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충청북도가 자리잡아나갈 수 있도록 충북도의 이미지를 강화하도록 함

2. 건립 기본 원칙

□ 기본방향

❍ 전시관 건립을 통한 오송생명과학단지 배후기능의 강화
-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지식집약적인 기업, 특히 화장품 및 바이오, 그리고 의료 관련 기업들이 존재
- 바이오 관련 연구시설로는 국립인체자원중앙은행, 국립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신약개발지원센터 등이 존재
- 바이오산업 생태계 내에서 기업, 관련 R&D 연구소 및 센터 등이 존재하나, 아직까지 기업과 투자자, 기업과 소비자 등의 연계는 미약
- 전체 R&D-생산-마케팅 등의 완결된 전후방연계를 달성시키기 위하여 마케팅 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
- 오송전시관 건립을 통하여 기업, R&D 중심의 생명과학단지의 상업화

를 달성시키고 이를 통하여 직접적인 경제 소득을 도모

❍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시관 운용
- 기업이 원하는 형태와 기간에 전시관이 운용될 수 있도록, 전시관 건립에 대한 관심만큼 건립 이후 기업이 선호하는 형태로 전시관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적인 운영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전시관의 다목적 활용을 통한 지역의 파급효과 제고
- 오송전시관에서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의 다양화 추진
- 다양한 사업 유치를 통하여 전시관의 이용률 제고
- 전시관 이용률 제고를 통하여 사업의 편익(benefit)을 증가

❍ 전시관 건립을 통한 인근 지역의 활력 제고
- 오송전시관 건립 사업은 기업의 판로개척,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임
- 이에 추가적으로, 전시관 건립은 이차적인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 이차 파급효과로 전시관 주변 지역의 상권 활성화

□ 운영의 원칙

❍ 오송전시관 예산투입의 효과성, 효율성을 위하여, 오송전시관은 전략적 선택과 기능의 다각화 원칙을 적용

① 전략적 선택 원칙
- 서울 코엑스나 일산 킨텍스의 형태와 같이 모든 부문의 행사를 유치하는 범용 전략과 대비되는 전략
- 창원 세코, 대구 엑스코와 같이 주력 부문을 선택하여 해당 부문의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

※ 창원 세코는 기계, 조선, 로봇 등 지식기반첨단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대구 엑스코는 섬유, 기계, 안경, 신재생에너지, 첨단디스플레이 등 지역특화산업을 우선적 유치

- 오송전시관은 장소적 이점을 고려하여 세종시 등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들과, 경제부문에서 바이오, 한방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
- 또한 여러 다양한 행사 중에서도 특히 기업의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

② 기능의 다각화 원칙

- 오송전시관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유치, 운영토록 함
-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행사 유치와 함께, 특정 부문 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
- 이를 위하여 상설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 내에 과학기술 및 바이오 분야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전시관을 운영하고, 비상설 프로그램이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인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B2B에서 B2C까지 지원하도록 함

제3절 운영프로그램

❍ 오송전시관은 일반적인 컨벤션 기능보다는 기업전시관을 핵심 기능으로 두고 관련 지원 기능을 부차 기능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운영

① 중앙정부 및 세종시 기관의 행사 운영

-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들, 그리고 세종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들(경제사회연구회 등)이 추진하는 대규모 전국 행사를 유치

② 기업제품 판매를 위한 B2B 공간 운영

- 바이오 분야의 기업, 연구소, 판매자 등 관계자들 간의 교류공간 구성
- 예를 들어, 우리나라 화장품 분야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등 대규모 기업체와 OEM중심의 중소기업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기업들은 독자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으므로, 오송전시관은 중소기업체 지원차원에서 판매자와 생산자 간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

- 이를 위하여 바이오 기술 분야별 산업관(화장품산업관 등), 대규모 행사. 미팅 개최를 위한 회의실, 그리고 투자유치 및 제품홍보를 위한 기업부스 등을 구성
- 항상적으로 기업투자자와 국제 매수자들이 기업과 만날 수 있는 소규모 홍보교류장소를 배치
- 뷰티박람회 등 일정 기간에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홍보교류 장소를 동시에 배치

③ 기업과 소비자 간 B2C 공간 운영
- 바이오 분야는 대규모 기술집약적 산업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의 수요와 취향을 반영하는 즉각적인 산업도 포함함
- 예를 들어, 바이오 분야 중에서 기능성 화장품, 힐링테라피 분야 바이오제품 등은 일반 소비자에 대한 시장마케팅 조사가 필요
- 소비자와 생산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험관을 설치
- 또한 지역내 바이오 분야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하여 충청북도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현재 바이오산업엑스포에서 운영했던 바이오미래관, 주제영상관 등을 배치

④ 기업과 기업간 업종교류 공간 운영
- 바이오는 학제 간 융합이 필요한 핵심적인 창조경제 부문임
- 바이오 분야의 최신 기술 정보 및 시장 트렌드, 그리고 공동 사업의 가능성 등을 타진할 수 있는 교류기회가 필요함
-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그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 간 네트워킹 활성화 지원

⑤ 지역내 교육취업 활성화 지원(시·군 취업박람회 등)
- 제품 전시, 기술 홍보, 정부 등 공공기관의 행사 지원 이외에,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내 인력의 유입 차원에서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인재 유치, 그리고 인근 관련 기업들의 인

력 유치를 위한 취업박람회 뿐만 아니라, 오송전시관이 충청북도 내 경제기반시설의 핵심시설로 자리잡기 위하여 충청북도 내 시·군의 취업박람회도 개최

제4절 건립계획

1. 기본방향

○ 전시행사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교통접근성 확보
- 전시장 위치를 전시행사의 수요자들인 기업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설정
- 전시행사에 관람객이나 참여자 증가를 위한 편의성 확보
- KTX 등 다수 대중교통 접근성 차원의 편의성 확보

○ 국가 및 지방재정 투자의 최소화 도모
-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긴축재정 분위기는 지속 예정
- 지방재정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민간 활력을 이용할 수 있는 재정투자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도시개발방식 중에서 민간+공공이 합작으로 진행하는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계획은 공공이 수립하고 규제 편의 등을 공공이 제공하는 동시에 민간이 수익성을 기초로 사업에 추진

○ 전시관을 통한 충북 산업의 상징성 강화
- 전시관이 충북 산업의 랜드마크 역할 수행
- 전시관이 오송생명과학단지, 충북의 신성장동력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치 및 건물 디자인 설계

– 전시관 주변에 쇼핑시설 등 복합기능을 배치함으로써 지역내 활력 제고

○ 전시관을 통한 인근 지역 활성화
– 전시관 주변 지역에 상업시설 등 관련 시설이 입주토록 장려
– 레스토랑, 상업시설 등이 있을 경우 관람객의 편의 도모와 아울러 지역내 추가적인 파급효과 발생

2. 사업내용

1) 건물의 규모 산정 기준

□ 산정기준

○ 전시관 건물의 규모는 수익성과 전시 기능에 맞는 적합성 양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오송전시관의 주요 기능은 기업의 B2B와 B2C, 그리고 중앙정부의 행사 추진임

① 기능적합성

○ 오송전시관의 기능에 맞는 고객 범위를 생각하면, (1) 국내 기업 및 투자자, (2) 국내 관람객, (3) 중국 투자자 등 국외 기업 및 투자자, (4) 해외 관광객 등임

○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회의”로 간주하며 그에 따라 “국제회의시설 규격”을 맞추어야 함

※ 오송의 경우에 오송바이오엑스포, 뷰티박람회 등 2일 이상 진행하는 행사가 기포함되어 있으므로 시행령 제2조 2호 나목에 근거하여 국제회의를 주관하는 국제회의시설에 해당

❍ 국제회의에 대한 정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국제회의에 대한 세부 규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 · 규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② 수익성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제회의 시설과 관련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시행령 제3조 제5항)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로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주차시설·음식점시설·휴식시설·판매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편의성 뿐만 아니라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국제회의 부대시설의 건립을 적극 검토

❍ 휴식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시설은 수익성과 관련되므로 부대시설을 위한 면적을 고려
- 다만, 주차시설은 전시행사 주최자와 관람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무료 주차장으로 할 것도 검토
- 그 외에 음식점시설, 쇼핑 등 판매시설 등은 수익성 차원에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건물의 규모 및 배치

☐ 유사사례 검토

○ 대구 엑스코 등 유사 시설은 지하 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나, 오송 전시관은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공간을 지상 활용을 원칙으로 함

– 엑스코, 킨텍스 등 유사시설은 주차시설과 쇼핑몰을 지하층에 두고 있음

– 최초 방문객들은 가시성 때문에 지하 주차장보다는 지상 주차장을 선호

○ 유사사례의 건축면적을 보면 최소 60천㎡(창원 세코)에서 430천㎡(서울 코엑스) 등의 범위를 보임

○ 코엑스를 제외한 나머지 유사시설은 현재 적자 운영 상태이므로, 오송전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축면적을 시장 수요에 맞게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표 23> 국내 유사 시설 비교

구분	대구 엑스코	일산 킨텍스	창원 세코	서울 코엑스
사업면적 (건축물)	부지면적 43,014(기존 20,862㎡)/건축연면적 145,952㎡(확장 이전: 88,310㎡)	부지면적 426,905㎡ / 건축연면적 339,503㎡	부지면적 39,817㎡ / 건축연면적 60,240㎡	부지면적: 36,364㎡, 연면적: 430,000㎡
건물층수	지하 4층-지상 5층	지하 1층-지상 14층	지상 1-6층	지하 4-지상 4층

☐ 사업면적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구분을 고려한 결과 오송전시관은 옥내외 전시면적(2천㎡ 이상), 준회의실, 그리고 부대시설이 적합

– 준회의실은 대회의실, 중소회의실 3실 이상의 규모임

– 사업을 이미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 따르면, 현재 국제회의를 추진할 경우에 참여인사 규모, 스태프들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최소 10천㎡가 필요함

<표 24> 국제회의시설 규격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구 분	세 부	규모 및 기준	
전문회의시설	대회의실	2천인 이상	
	중·소회의실 10실 이상	30인 이상	
	옥내·외전시면적	2천㎡ 이상	
준회의시설	대회의실	200인 이상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공연장·체육관 등의 시설
	중·소회의실 3실 이상	30인 이상	
전시시설	옥내·외전시면적	2천㎡ 이상	
	중·소회의실 5실 이상	30인 이상	
부대시설	국제회의 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전문회의시설과 전시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주차시설·음식점시설·휴식시설·판매시설		

○ 오송전시관의 층별 배치는 기능별 비자발적 노출 필요성에 따라 배치토록 함

- 비자발적 노출이란, 다른 목적으로 전시관에 찾아오더라도 그 방문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관람하고 구경하게 하는 노출을 의미
- 예를 들어, 전시관에서 가장 많은 노출을 필요로 하는 홍보부스 등은 건물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1층에 배치
- 반대로, 단체 견학이나 주제의식을 갖고 찾아오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실 등을 상층으로 배치

○ 관람객의 비자발적 노출을 고려한 배치는 <표 25>에 있음

- 1층을 오송바이오엑스포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시장과 소규모 행사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교류행사 및 모임을 위한 중소회의실을 배치
- 2층은 바이오산업관과 전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오피스들로 배치

<표 25> 오송전시관의 층별 배치

층	시설	내용
1층	전시장(Ⅰ)	- 홍보부스, 이벤트, 비상설 엑스포 등의 다목적 공간
	전시장(Ⅱ)	- 일정기간(2-3개월) 상설전시를 하는 소규모 전시장
	귀빈실	- 전시, 회의 행상 VIP 접대
	중소회의실	- 30인 이상 중소회의실
2층	바이오산업관	- 융합전시관, 기획전시관 등 최근 바이오 기술, 세계 바이오 제품을 전시 - 영상시설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기업 종사자, 학생, 잠재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전시공간으로 활용
	오피스	- 오송전시관 운영센터 오피스 - 행사준비업체 준비 오피스
	기타	- 사무실, 예약상담실, 뷔페레스토랑, 주차장

❍ 전시실, 오피스, 회의실 등은 사용의 유연성 확보와 높이를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함

– 두 가지 행사가 동시에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분할, 통합이 용이하도록 중소전시장, 중소회의실을 인접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음

– 견고한 바닥하중과 높은 천장 높이, 화물 하역 등이 쉽도록 하는 산업전문 전시장 설치

3) 사업 총규모 및 총사업비

❍ 전시관 조성에서 전시장 규모가 3,000평이 부족할 경우, 각종 행사시 여유 공간내 임시텐트 활용하여 행사를 이행하고 건축예정인 전시관 규모는 최소화

❍ 최종적으로, 오송의 전시관 사업장 면적은 다음과 같음

– 건축바닥면적 10천㎡(약3천평)

– 전시관 부지(주차장 포함): 66천㎡(약 2만평)

– 기타 33천㎡(1만평)

○ 그에 따른 전시관 조성의 총사업비는 용지구입비와 건축비(설계비용 포함)의 합산이며, 총 600억원이 소요될 예정
- 건축비 평당 1,000만원, 용지비 평당 100만원
- 그에 따라 각각 300만원으로 총 600만원으로 추정

3. 재원조달

1) 기본방향

□ 실현가능한 재원조달의 방식 도입

○ 재원조달의 방법을 모색할 때, 무리한 국비 지원이나 민간에의 의존을 지양

○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통하여 기계획된 사업이 적시에 완료됨으로써 전시관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대규모 전시의 임시시설 이용 등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하여 조성기간을 계획기간에 맞추어 진행될 필요가 있음

□ 공공과 민간의 협력 하에 재원 마련

○ 전시관 건립에 있어서 공공 재원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전시관 건립에도 민간의 재원을 활용함으로써 전시관 조성사업 자체의 수익률도 고려

○ 사업비 조달에 대한 공공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재원과 참여를 적극 독려

2)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의 유형

○ 재원조달 유형은 3가지가 모색될 수 있음

- (제1안): 총사업비 600억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방안
- (제2안): 총사업비 600억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방안
- (제3안): 총사업비 600억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
- (제4안): 총사업비 600억을 지방자치단체가 초기에 전액 부담하고 수익사업을 통하여 민간의 재원을 사후적으로 확보하는 민간의 간접 참여 방안

☐ 제1안: 국비 재정사업

○ 추진방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원을 공동 부담

○ 재원대책 : 국비 300억, 지방비 300억(충청북도, 청주시)으로 구분

○ 검토결과 : 사업 추진의 신속성이 확보
- 국비를 확보할 경우 사업계획에서 설계, 조성까지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장점이 존재
- 오송전시관의 국제회의기능 및 기업전시 수요기능 등을 강조하여 국비 확보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제2안: 지방비 재정사업

○ 추진방법 : 충청북도와 청주시에서 재정을 확보한 후 추진 및 관리

○ 재원대책 : 600억원 중 도비 300억, 시비 300억(청주시)으로 구분

○ 검토결과 : 타당성 확보가 관건임 (타당성조사 결과 이행여부 결정)
- 재정사업 600억의 타당성 확보 요건은 해당 사업의 공공성이나 경제적 수익성 중에서 일부가 확보되어야 하나, 해당 사업은 기업 및 경제부문의 활성화 사업이므로 사회복지와 같은 공공성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전시관의 가동률이 100%로 진행되더라도 투자액을 회수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600억의 재원 투입이 일시에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 계획기간의 장기화가 우려됨

□ 제3안: 공공, 민간 합작의 제3섹터방식

○ 추진방법 : 민간이 부지 조성 및 건축 완료하고 일부를 기부채납
- 공모를 통하여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일정면적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 수익사업을 하도록 하고 전시관부지는 기부채납

○ 재원대책 : 600억 중 300억은 공공이, 300억은 민간 투자
- 공공의 300억: 건축물 조성비, 도비 150억, 시비 150억
- 민간의 300억: 부지 매입 및 조성 → 전시관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지는 도로 기부채납

○ 검토결과 : 민간사업자 선정이 관건임
- 전시관 사업에 총 300억을 투입하고 일부는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하여 전시관에 걸맞는 지원시설(음식점, 전시 관련 서비스업 등)을 운영, 건설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를 가진 민간사업자 선정이 관건임
- 민간사업자 소유가 되는 일부 토지에서의 사업들이 전시관 사업의 기본구상과 조화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과 계획 협력이 조심스럽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제4안: 재정사업과 수익사업의 병행방식

○ 추진방법 : 공공이 부지 조성하고 일부 부지를 민간에 판매함으로써 재원을 조달하는 2단계 방식
- 1단계: 도와 청주시가 재정(약 300억원)을 투입하여 약 3만평의 부지

를 매입하여 개발(이 과정에서 토지이용 용도변경을 자연녹지지역 → 중심상업지역)

- 2단계: 약 1만평의 부지는 매각하여 발생한 수입금 약 200억원 정도를 전시관 건축비로 활용하여 도비 및 시비 재정부담 최소화

※ 3만평중 2만평은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 → 상업지역)을 통하여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건축비는 공영개발 수익금 일부 활용

○ 재원대책 : 600억 중 300억은 공공이, 300억은 민간 투자

- 공공의 300억: 1단계 부지 조성비, 도비 150억, 시비 150억
- 민간의 300억: 일부 부지의 매입비용

※ 민간에게 판매한 300억으로 2단계 사업으로 공공이 건축물을 설계, 조성

○ 검토결과 : 사업 추진의 타당성 확보가 제일 용이

- 민간에게 판매되는 토지에서 수행될 수 있는 기능과 활동들이 전시관 사업의 기본 구상과 조화될 수 있도록 진행시킬 필요가 있음
- 건축물 조성은 공공이 사업시행자이나 실제 추진은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 전시관의 트렌트를 반영

4. 운영방안

1) 기본방향

□ 전시관 수요자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가동률 제고

❍ 전시관을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이 전시관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전시관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전시관의 수익률을 제고

❍ 전시관 수요자는 민간 기업이 될 수도 있지만 공공부문(시·도, 공공조직 등) 사회시민단체 등 다양하므로 수요자 특성에 맞는 지원시스템을 구축

❍ 전시관 수요자가 전시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 즉각적인 대응과 서비스가

존재해야 하며 전시관 이용 중간과 완료 이후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서비스를 제공

□ 전시관 공급자와 수요자간 의사소통시스템과 피드백시스템 구축

❍ 전시관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요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전시관이 대여, 운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전시관 운영주체와 전시관 수요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행사 종료 이후에 전시관 이용자들의 피드백이 향후 전시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시관의 향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홍보 등 전국을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

❍ 전시관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시관 잠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조직과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 전시관 트렌드와 운영 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내 지명도 높은 조직 및 단체, 인사들과 자문체계를 구축

□ 지속적인 사업 발굴 및 유치 시스템 구축

❍ 현재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를 전시관에서 진행한다고 하였을 경우에 총 77일을 전시관 가동할 수 있음

❍ 특히, 전시관 가동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 내의 다른 시·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시·군의 농특산품 전시회 등은 전국적인 도소매상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교통접근성이 편리한 오송지역에서 추진하는 것이 전시사업 자체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또한, 오송지역과 충북도 내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취업박람회 등도 전시관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표 26> 현재 충청북도 내 대규모 전시회 현황

주관	행사명	시기(월)	기간(일)	실소요(일)	비고
합계			120	77	
충청북도	뷰티박람회	5	24	12	*2년 주기
	바이오엑스포	9~10	17	8.5	*2년 주기
	솔라페스티벌	9	3	3	
	투자유치설명회	4	1	1	
	바이오코리아	4	3	3	
	벤처박람회	10	3	3	
	중국인페스티벌	9	3	3	
	충북우수시장 박람회	9	3	3	
	지방공동투자설명회	6	1	1	
	농산물직거래장터	10	5	5	
청주시	공예비엔날레	9~10	40	20	*2년 주기
	생명살축제	9~10	11	11	
	직지축제	10	5	2.5	*2년 주기
	취업박람회	4	1	1	

※ 실소요일은 2년주기 1/2계상

2) 운영조직의 구성

□ 오송전시관 운영조직의 기능

❍ 전시관에서 진행될 사업들의 발굴

❍ 전시관 잠재적 이용자에 대한 홍보 및 유치

❍ 전시관 활용(공간, 전시지원 서비스 등)을 위한 일관된 지원시스템 구축
  – 이를 위한 잠재적 수요자 유형별 맞춤형 지원 매뉴얼 작성

❍ 유명인사,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자문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 운영조직의 성격

❍ 전시관 운영에는 다양한 전문기술이 필요
  – 전시 부스, 컨벤션, 회의 등을 개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컨벤션 기술
  – 전시 대여, 홍보 등에 필요한 마케팅 기술
  – 건물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기술
  – 전시 트렌드를 반영하는 홍보부스 배치 등의 디자인 기술 등

❍ 따라서, 전문기술들의 트렌드를 추격, 선도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전시관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

❍ 전시관의 책임주체는 충청북도로 하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 전문업체에게 위탁 운영토록 함
  – 위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무원이 약 2명 파견

제5장
오송전시관 건립의 사전타당성 검토

제1절 개요
제2절 사전타당성 검토
제3절 검토종합

제5장 오송전시관 건립의 사전타당성 검토

제1절 개요

1. 일반적인 타당성 평가의 개념과 절차

□ 일반적인 타당성 평가의 개념

○ 일반적으로 타당성 평가란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어떠한 대안을 어떠한 순서로 현명하게 추진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상세 분석하는 것(임용택 외, 2013)

- 타당성 평가 결과는 재정투자사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한정되고 대규모 투자사업을 무한정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타당성 평가 시행

- 예상되는 여러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 투자우선순위 등을 사전에 비교·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

□ 일반적인 타당성 평가의 절차

○ 타당성평가는 대상사업의 선정(identification), 사업의 타당성 분석(appraisal), 사업의 집행(implementation), 그리고 사후평가(post-evaluation)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통임

- 대상사업의 선정단계에서 사업의 목적, 규모, 범위, 그리고 재원조달 여부 등을 파악
- 일반적으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평가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사후평가는 타당성 재검증이나 공사 완료시점에 예측치와 실제치를 분석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함

※ 최근 예타-중타-후타로 타당성 평가 절차가 보다 강화되어져 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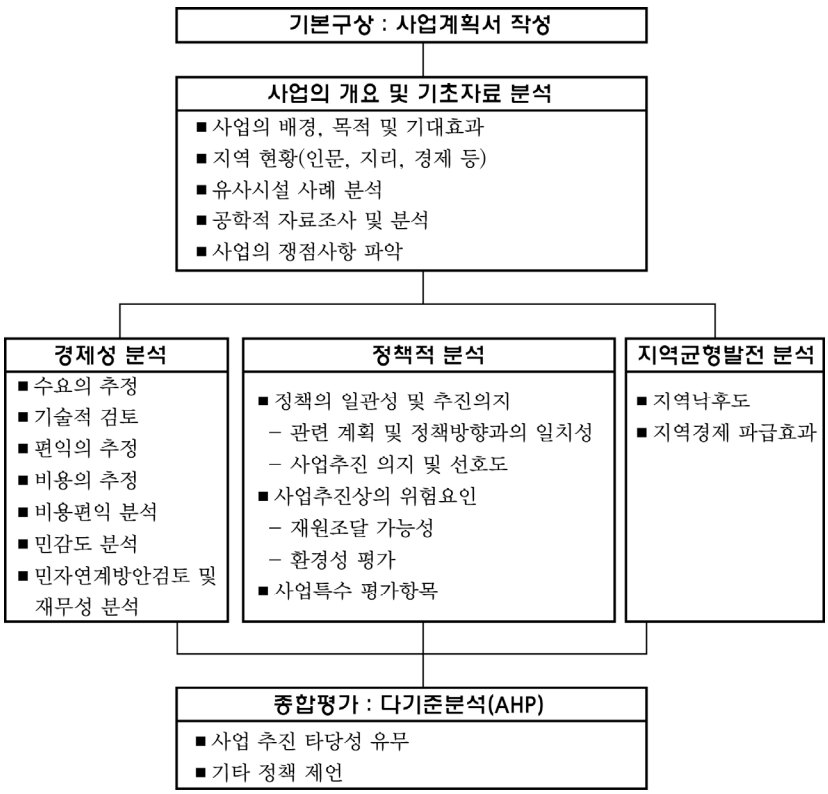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수립을 위하여 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계획타당성 평가, 예비타당성 평가, 본 타당성 평가, 타당성 재검증, 그리고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 분석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 평가와 본타당성 평가가 반드시 전후 절차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평가절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중에서 예비타당성 평가의 경우 KDI(2008)의 일반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체계와 절차를 제시하고 있음

- 첫째,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의 쟁점을 부각시키고,
- 둘째, 수요·편익·비용 추정을 통해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며,
- 셋째,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특수평가 항목 등의 정책적 분석 및 지역 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용유발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낙후도 개선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토대로 본 사업의 국민경제적 위치를 파악하고,
- 넷째, 다기준 분석을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평가

<그림 29>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 수행체계



2. 오송전시관 건립의 타당성 검토 개요

□ 오송전시관 건립의 사전타당성 검토의 목적

○ 본 과업은 오송전시관 건립의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 단계에서 오송전시관 건립의 주변여건을 분석하고 그 필요성 등을 따져 전시관 건립의 개략적인 사전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임

– 오송전시관 건립의 사전 타당성은 제3장과 제4장의 여건분석 및 기본구상에 따라서 평가

○ 주로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economic feasibility analysis)은 사회적 관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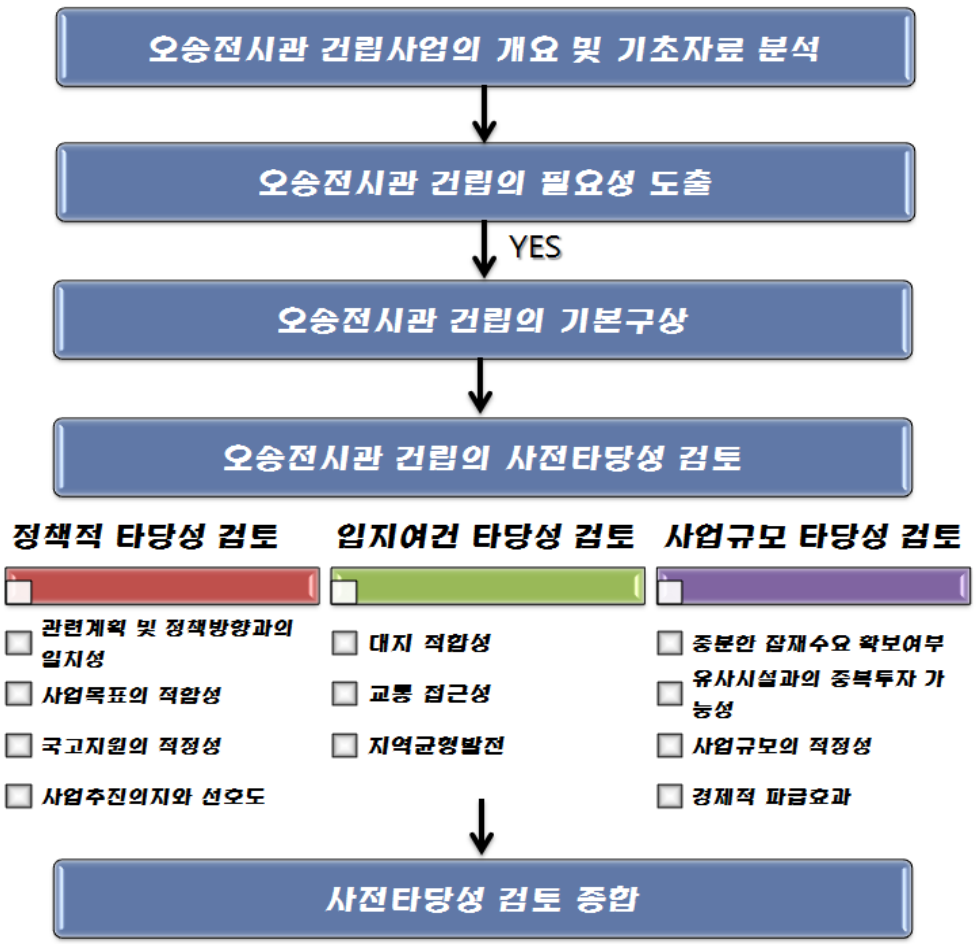
과 편익을 계량화하여 이를 비교해야 하므로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제외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공공투자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국가 전체 관점에서 측정하여 이에 따라 경제적 수익률(economic rate of return)을 계산함으로써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음(KDI, 2008)

☐ 오송전시관 건립의 사전타당성 검토 방법

○ 오송전시관 건립의 사전타당성 검토는 크게 정책적 타당성 검토, 기본구상에 따른 입지여건 타당성 검토 및 사업규모 타당성 검토로 구분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기대효과, 유사시설의 사례분석 등의 오송전시관 건립의 개요와 기초자료 분석은 제2장~제4장에 제시하였으므로 제외

○ 이 중에서 정책적 타당성은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검토와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등을 평가
- 입지여건 타당성은 오송 주변지역의 교통이나 경제 환경을 고려한 입지 평가를 의미
- 일반적인 예비타당성 평가 방법과 같이 자세한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지는 않으나, 사업규모 타당성 검토에서 개략적인 비용 및 전시관 규모에 대한 타당성을 정성적으로 분석함

<그림 30> 오송전시관 건립의 사전타당성 검토 수행체계



제2절 사전타당성 검토

1. 정책적 타당성 검토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주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법규뿐만 아니라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또는 일치성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KDI, 2008)

- 상위계획은 대부분 20년 정도의 장기계획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계획들을 상당기간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수립
- 향후 장기간에 걸쳐 관련계획 및 하위계획들과 정책추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과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 및 충북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을 검토한 결과 오송전시관 건립은 상위계획과 정책방향 및 주요전략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토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등을 제시
- 특히 국가 X자형 고속철도망 구축의 분기점이 되는 KTX 오송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 등이 예정되어 있고, 이 지역에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이 위치해 있어 기업 간 B2B 활성화에 기여 가능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가 비전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3차원 지역발전정책 제시

-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융복합산업과 녹색성장산업 육성 등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기반을 조성

○ 연계효과가 크고 지역여건에 맞는 권역별 선도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지역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진흥
- 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권역별 선도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

□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

○ 충북 종합계획의 발전방향은 지역의 주력산업을 의료 및 바이오 산업으로 선정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
- 내륙발전축 공간구조 구상은 균형발전축, BIO 웰빙발전축, 동서연계발전축으로 구성되는데, BIO웰빙발전축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세종시와 대전광역시, 청주시의 근교농업 배후지역의 개발수요를 연계육성

○ 주요 프로젝트는 오송바이오밸리와 역세권개발 및 오송지역을 중심으로 한 근교형 바이오웰빙지구 제시
-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KTX오송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거점 오송바이오밸리 계획

○ 또한 신규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의 하나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관광 및 MICE산업 육성을 계획
-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 투자자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 홍보 부스 필요

□ 충북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

○ 현재 충청북도는 한국형 화장품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목표로 화장품산업을 중심으로 경제협력권사업 추진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은 반도체, 바이오의약,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등이 선정되어 충북지역은 바이오의약, 화장품 등이 산업생태계의 중심으로 더욱 성장할 전망

2) 사업목표의 적합성

○ 오송전시관 건립의 목표는 충청권 내 기업교류 Hub 역할을 담당하고,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원을 촉진하며, 충북 바이오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임
– 세종시와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존재하지 않는 전시시설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여러 경제주체들 간 상호작용을 촉진
–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차원에서 기업들과 투자자들 간,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 간의 상호 네트워킹 촉구
– 오송전시관 내 체험, 교육시설 등의 구비를 통하여 새로운 과학기술,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충청북도가 자리잡아나갈 수 있도록 충북도의 이미지를 강화

○ 사업목표가 기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및 설명회 등의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B2B를 통한 기업간 상거래 장소를 제공하는 등 기업부문에서의 상호교류를 유도하는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업목표가 상위계획 및 관련법률과 부합
– 전시관 건립을 통한 오송생명과학단지 배후기능을 강화하고, 전시관의 다목적 활용을 통한 지역의 파급효과 제고
– 전시관 건립을 통한 인근 지역의 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창출 등

3) 국고지원의 적정성

□ 국고지원 적적성의 기본 요건

○ 전시컨벤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는 국제적인 추세로써, 국가 간 또는 도시 간 전시컨벤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전시관 및 컨벤션 시설이 위치해 있지 않은 충북, 청주, 오송지역에 산업경쟁력을 갖춘 전시컨벤션 중심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가능

○ 그러나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6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고가 지원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므로 국고지원의 정당성 내지는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국고지원의 근거 및 지원비율의 세부적인 적정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 전시산업발전법 상 중앙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시시설의 건립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 단, 계획 중인 오송전시관은 전시시설이 옥내외 전시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전시산업발전법 상 산통부 심의 필요
- 또한 오송전시관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도 부합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국제회의시설 건립 등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

□ 전시산업발전법

○ 전시산업발전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 「전시산업발전법」(제21조) 전시산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수요조사
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전시산업 기반조성 사업
3. 국내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개최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전시시설의 건립)
– 제12조(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 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 제14조(전시회 인증)
– 제15조(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 제16조(국제협력의 촉진)
– 제17조(전시회의 국제화·대형화·전문화 등)
– 제18조(전시산업의 표준화)
– 제19조(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 제19조(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 전시산업발전법 상 전시시설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서 승인한 박람회이거나 옥내외 전시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 등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51호)

제2조(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서 승인한 박람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

가.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00명 이상의 외국인 구매자가 참가등록할 것

3. 그 밖에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전시회 중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전시주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가.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0개 이상의 전시부스를 갖출 것

제3조(전시시설의 종류와 규모)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옥내와 옥외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2.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전시회부대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연회장, 공연시설, 상담회장 및 설명회장 등
3. 관련 부대시설: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관련된 숙박, 식품접객, 판매, 휴식 등을 위한 편의시설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서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재정상의 지원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여야 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치에는 국제회의 참가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2.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3.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4.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
5.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정보와 통계의 수집·분석 및 유통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사업추진의지와 선호도

□ 충청북도와 통합청주시

❍ 공공투자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할 때 수행주체나 지역주민, 해당 지자체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추진의지가 어떠한 지를 검토하는 것도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KDI, 2008)
- 모든 공공투자사업은 사업이 시행되는 공간적 장소가 있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지리적 인접성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기 때문
- 중앙정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 할지라도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대상지역 또는 주무부처가 사업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사업 추진 주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사업 추진에 대한 저항도 중요함
- 사업추진 주체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저항이 없다면 사업추진은 원활히 수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 본 사업의 관련 지자체인 충청북도와 통합청주시는 사업 추진의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오송전시관을 건립함으로써 충북의 화장품·바이오 등 지역산업을 발전시켜 충북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주민의견

○ 충청북도는 2012년 9월, 충북지역 학계, 업계, 지역 주민 및 특화 전시회 참가 예상 업체를 대상으로 오송 전시관 건립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한 바 있음
- 표본크기는 학계와 업계 및 일반시민 129명, 기업과 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개별면접조사를 시행하였음

○ 분석결과 오송 전시관의 건립 필요도는 70.4점으로 응답자의 2/3이상이 오송 전시관 건립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었음
- 업계의 필요도는 78.1점으로 타 집단 대비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였고, 일반시민들도 70.9점으로 상당히 높았음

○ 주민들도 오송전시관 건립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입지여건 타당성 검토

1) 대지 적합성

❍ KTX 오송역 인근에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도 개발 중

–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는 보건의료행정타운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함께 개발하여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중심지로 육성중임

❍ 오송전시관이 속한 청주시에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비롯하여 총 국가산업단지1개, 일반산업단지 10개, 도시첨단산업단지 2개, 농공단지 2개가 지정

– 일반산업단지는 4개가 가동 중이고, 나머지는 현재 개발 진행 중이거나 개발 예정임

❍ 인접한 오창지역에도 오창과학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전자업종이 주력업종임

❍ 따라서 오송전시관 건립의 목표가 기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등 행사지원 및 B2B를 통한 기업간 상거래 장소 제공 등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이므로 산업발전의 중심지에 전시관을 입지하는 것이 타당함

– 충북 및 통합청주시 지역산업발전의 중심지는 오송이라 할 수 있으므로 오송 내 오송생명과학단지 근처에 입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음

2) 교통 접근성

❍ 충청북도는 국토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중심지로서 교통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장점을 보유

– 수도권과 경부 및 호남권을 잇는 교통축의 내륙 중심부에 위치하여 고속도로가 일찍부터 발달해 있어 경부고속도로 청주 나들목과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나들목이 위치

❍ KTX 오송역을 중심으로 X자 고속철도망이 형성되어 있어 전국을 1시간 이내 접근 가능

-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KTX 경부선 신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호남선도 개통
- 특히, 서울에서 오송까지는 KTX 차내시간만 따진다면 30분에 불과
- 2013년 4월부터는 세종시 BRT노선이 오송역까지 운행되어 세종시와 오송지역을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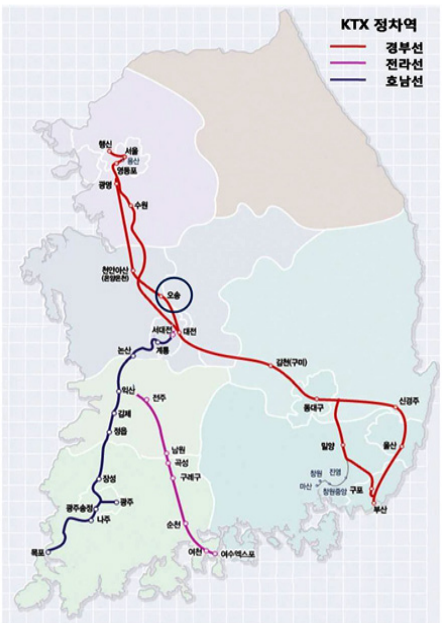
❍ 또한 충북경제자유구역내에 위치한 중부권 유일의 국제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이 운영되고 있어 기존 중심도시와 세종시의 관문역할 수행

-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까지 걸리는 시간은 승용차로 약 10분 내외로 공로와 항공교통 연계가 용이함

❍ 본 사업은 B2B를 통한 기업간 상거래 장소 제공 및 기업지원을 위한 박람회·설명회 개최가 목적이므로 전시관의 입지는 기업들의 접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토의 중심지이자 KTX 오송역을 끼고 있어 기업지원을 위한 행사 및 상거래 장소로 적합

<그림 31> 오송의 입지여건



□ 오송의 현황

❍ 오송의 유래

- 최치원 선생이 후학을 양성하며 5그루의 소나무를 심어 오송리로 불리어 짐
- 강감찬 장군이 군사와 말을 오송에서 훈련시켜 귀주대첩에서 승리

❍ 위 치 : 청원군 오송읍(2014년 청주시와 통합)

❍ 인 구 : 21,521명(7월 현재)

□ 오송의 접근성

❍ 오송분기역을 통한 국내 X자 고속철도망 (KTX 경부선, 호남선(2014년 개통))

❍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 인접(21km)

❍ 전국 어디로든 2시간내 연결되는 사통팔달 교통망 (고속도로, 철도)

❍ 세종시(10km), 오창(10km) 등 연접

□ 오송 주요 추진사업 및 시설현황

❍ 오송제1생명과학단지 조성 : 오송읍 일원 463만㎡, 1997~2008, 바이오 행정·산업 단지

❍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 : 오송읍 일원 333만㎡, 2010~2015, 바이오 의료·교육 단지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오송읍 일원 113만㎡, 2009~2038, 바이오 연구개발 단지

❍ KTX역세권 개발 : 오송읍 일원 163만㎡, 2011~2017, 바이오 문화·관광 개발

❍ 현 입주시설 :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 국가 바이오메디컬 시설(5개 센터, 건축 중), 핵심연구 지원시설(4개 센터, 건축 중), 58개 업체·9개 연구기관 입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 중(인접시설)

❍ 규 모 : 연면적 20,338㎡(지하 1층, 지상 7층),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661, '13. 8월 가동 예정

❍ 주요시설 : 회의실(500명(1실), 56명(3실), 32명(3실)), 연구원 숙소(42실), 벤처연구실(49실)

❍ 주요기능 :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편의시설로 회의실, 연구원숙소, 벤처기업실 등 완비

자료: 충청북도(2012)

3) 지역균형발전

○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별도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 국가정책을 평가에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을 반영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개발하고, 사업 시행의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다지역투입산출모형(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 MRIO)을 개발(KDI, 2008)
- 근본 취지는 낙후지역에서 수행되는 공공투자사업,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성이 다소 낮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상태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KDI(2008)의 지역낙후도 지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는 전체 16개 시도별 순위에서 1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낙후도지수는 낙후 정도를 구성하는 지표들의 가중평균값임

○ 따라서 오송전시관 건립은 지역낙후도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도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개발수요를 흡수하는 기능을 담당하리라고 사료됨

- 산업전시관 기능을 부여하고, B2B 기능을 증대한다면 수도권 과밀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충청북도는 오송역을 오송지역 및 청주권 그리고 세종시의 관문역으로 활용하기 위한 역세권개발 추진 중(충청북도, 2011)

○ 충청북도는 공간 상으로 국토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지역 간 교류도 활성화할 수 있음

-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서부 산업지대와 서남부 산업 및 교역지대와 연계축 형성

<표 27>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지역		인구		경제			기반시설			종합	
		인구 증가율	노령화 지수	재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승용차 등록대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지 이용률	지역 낙후도 지수	지역 낙후도 순위
시	서울	0.148	38.815	95.065	5.556	21.458	13.13	0.185	39.92	1.4	1
	부산	-0.828	46.493	73.203	5.492	19.131	3.488	0.148	16.267	0.14	8
	대구	-0.098	37.403	73.923	6.156	24.814	2.407	0.152	11.806	0.469	5
	인천	0.538	30.805	71.876	8.837	21.946	2.704	0.117	10.986	0.387	6
	광주	0.473	29.204	59.254	4.943	22.763	2.684	0.159	14.136	0.266	7
	대전	1.01	30.171	73.406	3.236	26.479	2.982	0.153	13.456	0.59	4
	울산	0.953	22.103	66.591	12.845	26.834	1.477	0.103	8.187	0.69	2
도	경기	3.132	29.836	76.897	9.173	23.942	1.09	0.122	5.467	0.649	3
	강원	-0.493	60.141	23.536	2.769	23.365	0.466	0.126	1.044	-0.719	14
	충북	-0.041	53.121	29.938	8.152	22.951	0.709	0.1	2.692	-0.417	11
	충남	0.534	64.77	39.61	4.509	22.29	0.787	0.114	3.749	-0.422	12
	전북	-1.138	62.409	21.136	4.341	20.954	0.81	0.143	3.048	-0.787	15
	전남	-1.54	78.054	17.034	4.509	18.144	0.72	0.095	2.8	-1.172	16
	경북	-0.736	68.618	24.608	9.772	23.158	0.608	0.091	1.966	-0.533	13
	경남	0.498	46.803	33.203	10.943	23.435	0.882	0.104	3.013	-0.157	9
	제주	0.596	42.025	36.761	1.533	24.233	1.592	0.115	3.182	-0.384	10

주 : 기장군은 부산광역시에,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에,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천광역시에, 울주군은 울산광역시에 포함하였음

자료 : KDI(2008)

3. 사업규모 타당성 검토

1) 충분한 잠재수요 확보 여부[51]

□ 산업단지 및 행정타운 전시관 및 B2B 행사 수요

○ 충북, 청주, 오송 모두 오송지역 내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 연구개발지원기관이 집중되어 있어 전시관 시설물을 빈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주변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와 공공기관 등이 지속적으로 세미나와 회의, 학술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들의 높은 수요가 예상됨

○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은 홍보와 투자를 위해서 생산자와 바이어 간 B2B 공간이 필요
- 기능성 제품들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루트 확보를 위한 전시관 수요도 필요하기 때문

○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는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6개 국책기관의 행정타운이 건립되어 주요기관들이 이전
-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등 대규모 공공시설이 이전하여 전시관 수요 창출 충분

□ 각종 박람회 및 세미나 수요

○ 충북에는 산업전시관이나 전문 컨벤션 센터가 입지해 있지 않지만 각종 국제 박람회 및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및 국제 바이오산업 엑스포는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로 오송에서 개최
- 충북은 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새로운 산업기반

51) 오송전시관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는 실질 재원의 투자비와 발생 수익 중심의 분석 외에도 전시관 건립과 운영에 따른 사회적 차원의 발생편익을 고려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요구됨

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

○ 2013년도에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가 충청북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주시, 청원군의 주최로 2013년 5월 24일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개최

-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는 외국인 관람객 83,363명이 방문하였으며, 외국인 관람객을 포함 24일간 총83,363명이 방문(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2013)
- 프랑스, 캐나다 독일 등 총 17개국 47개 해외기업이 참여하였고, 2,124명의 바이어가 화장품산업관과 뷰티산업관 방문

○ 2014년 9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17일간 오송생명과학단지내에서 개최된 국제 바이오산업 엑스포는 충청북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청주시가 주최

- 2002년 개최 이후 국제 바이오산업 엑스포는 충북 최대의 지속적인 주요 행사로 자리매김
- 961,427명(외국인 41,735명 포함)이 방문했으며, 기업체 303개사(국내 219, 해외 84), 국내외 바이어 4,106명이 참석

2) 유사시설과의 중복투자 가능성

○ 오송전시관에 대해서 국내 산업관련 박물관 및 전시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본 사업이 주무부처의 계획과 같이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와 기능의 중복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유사시설이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시설의 적정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중복투자될 가능성이 높아 잠재수요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됨

○ 충북은 화장품산업과 반도체, 바이오의약,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등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이 발전할 전망이나, 현재 이러한 산

업생태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시설이 부족한 형편임

- 전시관 인프라가 현재는 충북에 없으며, 컨벤션 센터도 입지해 있지 않음
- 전국 주요 컨벤션 입지를 조사한 결과 컨벤션 기능이 부재한 광역자치단체로는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3곳

○ 화장품·바이오·의료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 및 행사 시설, 그리고 기업의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해주는 인프라가 필요한 시점

3) 사업규모의 적정성

○ 오송전시관 건설사업은 향후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면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사업계획에서 제시된 각 시설의 공간의 면적 비중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각 시설의 법정면적기준을 검토하여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각 항목을 세부 기능별로 구분하여 수준 및 범위에 따라 구분한 단가를 적용해야 함
- 해당 사업부지의 면적 및 소유관계에 따른 용지비 추정도 필요하며, 근거에 의한 적정 운영비 산정도 필요

○ 현재 기본구상 상으로 오송전시관은 다양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SB프라자 조성사업과 연계한 대규모 다목적 복합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전시성 행사가 아닌 다목적 전시관을 미래지향적으로 설치하여 주변 여건, 장래성,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
- 되도록 CV센터 산학융합지구에 있는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 기본구상 단계이기는 하지만 부지는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되 최소의 부지 설정

-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여유부지를 확보하고, SB프라자 기능이 포함

된 복합 전시관 건립

- 전시장 규모가 3,000평이 부족할 경우, 각종 행사시 여유 공간내 임시 텐트 활용하여 행사를 이행하고 건축예정인 전시관 규모는 최소화

○ 따라서 CV센터 산학융합지구에 있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면서 부지를 최소화하고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사업부지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경제적 파급효과

○ 전시컨벤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는 국제적인 추세로써, 국가 간 또는 도시 간 전시컨벤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여러 국가에서 타지역과의 경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등 경쟁이 갈수록 치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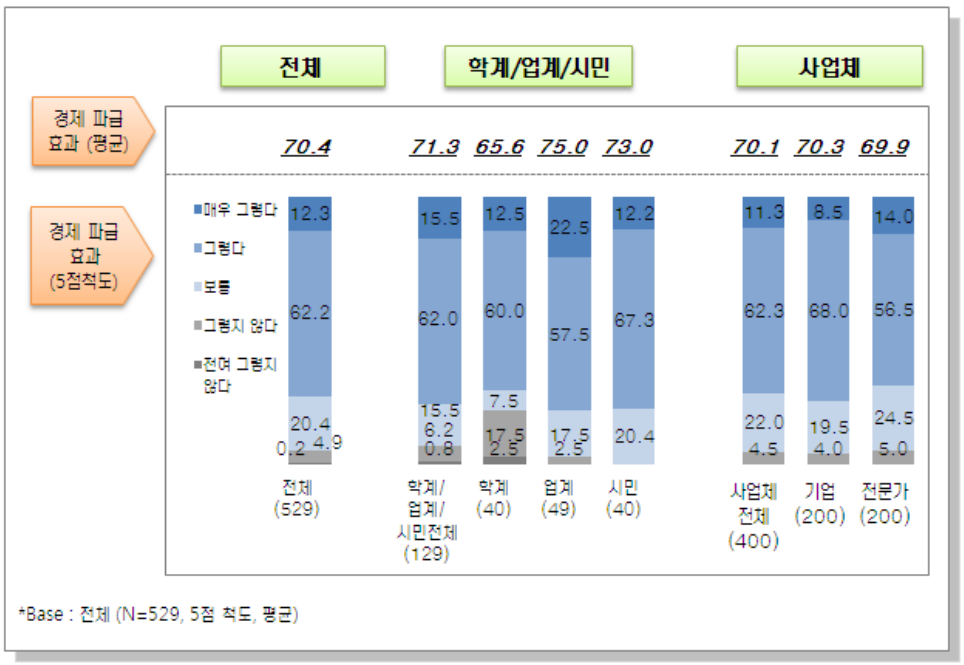
○ 전시컨벤션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고용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문화발전, 그리고 지역 이미지 향상 및 홍보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어 고부가가치산업에 해당

○ 특히, 전시관 산업은 기업서비스지원사업으로 최근 성장추세에 있어 지역기업의 기업활동지원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산업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

- 전시관산업의 육성을 통해 젊은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음

<그림 32> 오송 전시관이 충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



자료: 충청북도(2012)

❍ 충청북도(2012)의 조사결과 충북지역 학계와 업계, 지역 주민 및 특화 전시회 참가 예상업체는 오송 전시관이 건립될 경우, 충북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70.4점이라고 응답한 바 있음

– 충북지역 학계/업계/시민은 71.3점이며 이중 업계는 75.0점으로 타 집단 대비 다소 높게 평가하였으며, 전시회 참가 예상 사업체는 70.1점으로 평가

제3절 검토종합

○ 본 연구는 오송전시관 건립의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 단계에서 전시관 건립의 개략적인 사전타당성을 검토하였음
- 오송전시관 건립의 사전타당성 검토는 크게 정책적 타당성 검토, 입지여건 타당성 검토 및 사업규모 타당성 검토로 구분하였음

▢ 정책적 타당성 검토결과

○ 정책적 타당성 검토에서는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목표의 적합성, 국고지원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의지와 선호도를 분석하였음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과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 및 충북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을 검토한 결과 오송전시관 건립은 상위계획과 정책방향 및 주요전략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충북 발전방향은 지역의 주력산업을 의료 및 바이오 산업으로 선정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
- 국토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등을 제시

○ 사업목표는 충청권 내 기업교류 Hub 역할 담당,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원촉진 및 충북 바이오의 이미지 강화임
- 사업목표가 기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및 설명회 등의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B2B를 통한 기업간 상거래 장소를 제공하는 등 기업부문에서의 상호교류를 유도하는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업목표가 상위계획 및 관련법률과 부합

○ 전시산업발전법 상 중앙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시시설의 건립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 단, 계획 중인 오송전시관은 전시시설이 옥내외 전시면적이 2천 제곱

미터 이상이므로 전시산업발전법 상 산통부 심의 필요

○ 충북과 통합청주시는 사업 추진의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주민들도 오송전시관 건립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입지여건 타당성 검토결과

○ 입지여건 타당성 검토에서는 대지 적합성과 교통 접근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분석하였음

○ 먼저 대지적합성은 KTX 오송역 인근에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도 개발 중이어서 적합

– 충북 및 통합청주시 지역산업발전의 중심지는 오송이라 할 수 있으므로 오송 내 오송생명과학단지 근처에 입지하는 것이 효율적임

○ 교통 접근성 역시 KTX 오송역을 중심으로 X자 고속철도망이 형성되어 있어 전국을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하고 교통의 중심지

– 국토의 중심지이자 KTX 오송역을 끼고 있어 기업지원을 위한 행사 및 상거래 장소로 적합

– 충청북도는 오송역을 오송지역 및 청주권 그리고 세종시의 관문역으로 활용하기 위한 역세권개발 추진 중(충청북도, 2011)

○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충북은 KDI(2008)의 지역낙후도 지수가 16개 시도 중 11위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낙후도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충청북도는 공간 상으로 국토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지역 간 교류도 활성화할 수 있음

▢ 사업규모 타당성 검토결과

○ 사업규모 타당성 검토에서는 충분한 잠재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중복투자 배재, 사업규모 적정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았음

○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 연구개발지원기관이 집중되어 있어 산업단지 및 행정타운 전시관 및 B2B 행사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충북에는 산업전시관이나 전문 컨벤션 센터가 입지해 있지 않지만 각종 국제 박람회 및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각종 박람회 및 세미나 수요도 있음

○ 그러나 전시관 인프라가 현재는 충북에 없으며, 컨벤션 센터도 입지해 있지 않아 유사시설과의 중복투자 가능성도 낮음

– 전국 주요 컨벤션 입지를 조사한 결과 컨벤션 기능이 부재한 광역자치단체로는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3곳

○ 기본구상 단계이기는 하지만 부지는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되 최소의 부지를 설정하고 있어 사업부지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여유부지를 확보하고, SB프라자 기능이 포함된 복합 전시관 건립

○ 전시컨벤션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전시관산업의 육성을 통해 젊은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활력 창출 가능

【참고문헌】

경상남도, 2013,「경상남도 도정백서2012」
국토교통부, 2014,「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1,「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조직 및 인력운영방안 연구」
송성수, 2010,「과학관의 사례와 발전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2002,「한국무역협회 감사결과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4,「지역산업정책 백서」
송성수, 2010,「과학관의 사례와 발전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2013,「2013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백서」
임용택·백승걸·엄진기·김현명·이준·박진경, 2013,「교통계획」, 청문각
충북발전연구원, 2011,「충북 산업발전 전략」
충주시, 2014,「충주 강소컨벤션센터 조성 기본계획」
충청북도, 2011,「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
충청북도, 2012,「충청북도 도정백서 2011」
충청북도, 2012,「오송전시관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 및 사업체 대상 수요조사 정량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08,「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2004,「과학관의 교육기능 강화방안 탐색」
한국산업단지공단, 2014,「2014 산업입지요람」
한국산업단지공단, 2014,「2014년 2/4분기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보고서」
현혜정, 김경훈, 2010, IT기반의 융합형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 커뮤니케이션 방안-국외 과학전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구글 Cité des Sciences 이미지 검색, http://www.google.co.kr
국가기록원 무역박람회 검색, http://www.archives.go.kr

국가기록원 한국종합전시장 검색, http://www.archives.go.kr
네이버 지식백과 과학산업 박물관 검색, http://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일본과학 미래관 검색, http://terms.naver.com
네이버지식백과 한국종합전시장(COEX)검색, http://terms.naver.com
대구엑스코, http://www.exco.co.kr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라빌레뜨 과학산업관 홈페이지, http://www.cite-sciences.fr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http://osong.mw.go.kr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msichicago.org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http://www.kicoxosong.co.kr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일본 과학미래관 홈페이지, http://www.miraikan.jst.go.jp
일산킨텍스, http://www.kintex.com
창원컨벤션센터, http://www.ceco.co.kr
청주국제공항, www.airport.co.kr/mbs/cheongju
청주시청, http://www.cheongju.go.kr
충청북도 통계정보시스템, http://stat.cb21.net
코엑스, http://www.coexmall.com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2년 e-지방지표”,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2년 총사업체기초통계조사”, http://kosis.kr
The Daily Telegraph, "France: Insider's guide to Paris", http://www.telegraph.co.uk/travel/destination/france/paris/136765/Paris-free-things-to-do.html
universcience 홈페이지, http://www.universcience.fr
wikipedia, Cité des Sciences et de l'Industrie 검색, http://www.wikipedia.org

경남도민일보(창원컨벤션센터, 코엑스에 위탁, 2004년 12월 30일)
경남도민일보(CECO·경남무역 ‘적자행진 죽~’ 애물단지 될라,2007년 8월 27일)
국토일보(‘엑스코 확장 건립공사 CM용역사업 발주, 2008년 10월 13일)

매일경제(‘엑스코’ TK 비즈니스 중심지부상, 2011년 8월 15일)
연합뉴스(대구지역 물류시설 확충 본격화, 1996년 3월 6일)
연합뉴스(<유럽 핵과학문화>③과학강국 산실 과학관(끝), 2010년 11월 17일)
연합뉴스(킨텍스 제2전시장 개장 2년…매출·경상이익 2배↑, 2013년 9월 25일)
한국경제(대구‘컨벤션센터’ 19일 문연다, 2001년 4월 16일)
한국관광신문(대구엑스코 제2의 전시컨벤션 역사쓴다, 2011년 5월 26일)